

진리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기저권이 흔들리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하고 복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교회들을 통하여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낙태 없는 '포스트-Roe' 세계, 교회가 할 일 많다!

라이프웨이, 친 생명 암 센터 메리 홀로먼, 교회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 제시

미 대법원 문서 유출 사건 파장으로, 미국 사회는 '포스트-Roe' 세계에 직면해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제 매뉴얼을 갖추어졌는지,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고민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생명 중시 임신 센터에서 커뮤니티 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메리 홀로먼(Mary Holloman)은, 교회 공동체가 당장 구비해야 할 실제적인 노하우를 제시한다(7 Ways Your Church Can Lead in a Post-Roe World).

"Roe가 뒤집히면 실직인가요?"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거의 10년 동안 임신 자원 센터에서 일하면서 저는 생명을 지지하는 우리들 사이에서 공통된 주제를 발견했다. "우리는 Roe 대 Wade(Roe)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Roe는 여성의 절대적이고 헌법적인 낙태 권리가 확립된 미국 역사상 중추적인 시기를 나타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1973년 이후 낙태로 인해 6,3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잃은 슬픔을 겪으면서 Roe의 종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다.

Roe 대 Wade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 초안이 전례 없이 유출된 이후, 우리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살 기회를 갖게 될 "포스트-Roe 세계"의 진정한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Roe 이후의 세계가 낙태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낙태에 대한 의사 결정은 개별 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1개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할 태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으로 돌아가서, Roe의 종말이 친 생명 운동이 "실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



펴보아야 한다.

Roe의 끝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이 결정이 많은 여성들에게 두려운 소식이 될 것이라는 현실에도 대비해야 한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에게 두려움은 의사 결정의 강력한 힘이며 낙태가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 여성들이 "탈출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면 그 두려움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낙태는 감소할 수 있지만 임신 중 및 임신 후에 지원이 필

요한 여성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봉사의 행위와 희생적인 사랑으로 어머니와 가정을 영접함으로써 앞장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잠재적인 포스트 Roe 세계에서 당신의 교회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7가지 제안을 소개한다:

1. 지역 임신 자원 센터에 연락한다

미국 전역에 2,500개 이상의 임신 자원 센터가 있다. 이들 각각은 여성과 가족을 섬기는 지역 교회의 참여와 지원에 달려 있다. 주도적으로 교회에

대표자를 초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Roe 이후의 세계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배워야 한다.

2.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 예산을 평가하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있는 여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적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Pregnancy Network(TPN)에서 교회에 매달 헌금하도록 부탁한다. 한 여성에게 삶을 선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약 \$1,200(임신 검사, 초음파, (3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46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KAPC 제 46회 총회... '교회의 기초와 권세'

총회장 홍귀표 목사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제46회 총회가 5월 10일부터 13일 까지 Hilton Hotel(시카고)에서 "교회의 기초와 권세"라는 주제로 개최된 총회장 홍귀표 목사(시카고 다민족교회, 중부노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윈즈장로교회, 뉴욕노회)를 선출했다. 금번 제 46회 총회는 325 명이 등록된 가운데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각 노회마다 최선의 협력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가운데 진행돼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훈훈함을 안겨주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는 31개 노회, 460개의 교회가 속해 있다. 총회에 앞서 총회장 오세훈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광덕근 목사(가주노회) 기도, 이동진목사(남가주노회) 성경봉독, 홍귀표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홍귀표 목사는 "교회의 기초와 권세"(마 16:13-20)라는 제목으로 "교회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대답은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닌 모든 제자들, 예수를 따르고 영적 눈을 뜬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이 고백 속에 구원과 영생이 담겨있다"며 "우리 교단은 45년 전 이 고백위에 세워졌다. 우리 교단은 이 믿음이 고백대로 살며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설교했다. 이날 예배는 45년 전 교단 설립자인 고영보목사(중부)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고택원 목사(필라)의 집례와 전현수 목사(뉴욕남노회)기도, 이윤석 목사(뉴욕남노회)성경봉독, 고택원 목사 설교가 있는 뒤 총대 장로들의 분별과 분잔으로 성찬예식을 가졌다.

(10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이동진 목사



4면 푸른초장 황의영 목사



16면 인터뷰 홍귀표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의: 714-470-4563
말씀가르키그라기
말씀을 묵상하며 컬러를 배우는 컬러그라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2022년 제7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전문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훈련일정

- 1차 (수료대상): 8월 8일(월)-8월 19일(금) 오후 7시-10시 (미국 동부시간)
선교의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중심, 디아스포라중심, Here & Now 중심, 전문인중심,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협력중심, 땅끝중심), 선교사의 견경훈련, 난민선교, 사업장선교, 미디어예배선교, 시티교회, 지역교회 선교전략, 웨일즈선교, 지역교회 차세대선교, 의료전문선교, 미디어전략선교, 스페니쉬사역
- 2차 (파송대상): 8월 22일(월)-8월 26일(금) 오후 7시-10시 (미국 동부시간)
1차 훈련 및 선교사의 정체성, 선교사 소통, 선교사의 영성, 전도훈련, 전문인선교사, 인도네시아선교, 도심선교, 간증/나눔

훈련방법 온라인 훈련 (Zoom, YouTube)
훈련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금융,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50 / 부부 \$80
등록마감 7월 31일(주일) 등록문의: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강사진

홍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필라 안디옥교회	김기석 목사 PGM 이사장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김은범 목사 PGM 부이사장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고훈 목사 PGM 정책이사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안사무엘 목사 PGM 실용부 PGM 한국본부장 (한국 다민족선교)	김영민 선교사 PGM 명예본부장 (한국 다민족선교)
조영태 선교사 PGM 유원본부장 (웨일즈선교)	양종언 목사 안디옥 스페니쉬교회	고대은 목사 안디옥 필방교회	이준섭 목사 안디옥 시티교회	이민우 목사 이스탄 안디옥교회	이민정 선교사 PGM 명예본부장 (한국 다민족선교)
김현영 선교사 PGM 순회강사선교사 (동축립/수업전문)	폴현 선교사 PGM 선교사 (KCBMC 사무총장)	이태후 선교사 PGM 선교사 (도시민관/강화전문)	양용태 선교사 PGM 선교사 (그리스, 남민족)	함춘환 선교사 PGM 선교사 (인도네시아, 금융 및 교회개혁)	김태이빛 선교사 PGM 선교사 (U.K, 루터사역전문)
김수잔 선교사 PGM 선교사 (U.K, 루터사역전문)	박상수 선교사 PGM 부이사장 (교육/강사전문)	정준영 선교사 PGM 선교사 (지역교회/강사전문)	John Park 선교사 PGM 선교사 (여민관/VBS전문)	김엘리아 선교사 PGM 선교사 (RN PhD, 교수전문)	김엘리아 선교사 PGM 선교사 (미디어예배강사전문)
송기정 선교사 필라 안디옥교회 차세대교육부장	박지은 전도사 필라 안디옥교회 초등부 주말학교 디렉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선교헌신자들을 발굴하여 PGM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한 선교사집중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발행인 칼럼

만남을 목말라 하는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고등학교 때 가장 궁금한 장소가 있었다면 다방이다. 이미 TV에서 다방 안을 들어다보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니었다. 그래도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방을 어서 들어가 보고 싶었다. 지금 되돌아보니 그곳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만남이었다. 커피나 음악 등은 만남을 위한 아름다운 장치였을 뿐이다. 지금은 곳곳에 카페가 넘친다. 그곳의 음악과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커피 맛도 중요하다. 홀로 카페에 앉아 커피 맛을 음미하거나 공부하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오늘의 다방인 카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만남이다. 사실 다방이나 카페가 아니라도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이미 중학교 때 그 답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길이 있다. 음악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던가.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 그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 이 뒤엀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 같이 떠나 노중에서 만나를 지고" 꿈에서라도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은 모든 이의 갈망이 아니겠는가.

얼마 전 꿈속에서가 아닌 실제 만남이 있었다. 필자가 속한 교단 총회가 대면으로 있었다. 3년 만이었다. 전체 예배와 회의가 전개되면서 틈틈이 개인적인 반가움을 표했고 식사와 교제의 시간에는 삼삼오오 각자 겪었던 아픔과 누렸던 축복,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도 나누었다. 사모님들도 함께했기에 여기저기서 밝은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짐들이 만남 속에 털어졌고 개인이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도 만남 속에 융솟음졌다. 믿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탁월한 영혼을 맑게 해 주었으며 긍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해 주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만남의 위력을 계속 체험하면서 필자는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했다. 아무튼 총회 중에 흔히 있을 법한 갈등도 전혀 없었고 다들 이슈가 하나도 없었다. 오직 만남의 목마름에 충족한 해갈을 가지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지난주일 오후 교회 식당에서 아내와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 식사를 마친 한 청소년이 계속 앉아 있어서 물어보았다. "요즘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니?" 그 학생이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한 것은 "공부가 힘들어요" "외모가 신경 쓰여요" 등이 아니었다. "외로움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륱 흘리는 것이었다. 다소 뜻밖의 대답이요 눈물이었다. 약간 당황한 나는 매우 전형적인 말을 덧붙였다. "왜? 친구도 많을 텐데. 가족도 있고" 그 학생은 더 놀라운 말을 하였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그의 뺨에서 흐르는 눈물은 목마름의 눈물이다. 하나님과 만남을 목말라하는 청소년, 그전까지 그의 상태는 외로움인 것이다.

하나님과 만남을 목말라하는 것이 보기에 애처롭기는 하지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애처로움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시 42:1-2) 우리는 만남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한다. 팬데믹은 만남이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축복임을 일깨워주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도 축복이며 하나님과 만남은 더더욱 그렇다. 만남을 목말라하는가?

‘의도적인 아버지’는 아들을 신실한 남자답게 양육한다!

TGC, 존 타이슨 목사의 “아버지 되고자 노력하는 아버지”에 대한 서평 소개

내 아들은 이제 겨우 한 살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통과 혼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게 바로 내 어린 시절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이 들었고 아들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어릴 때보다 지금 더 자주 아버지의 부재를 느낀다. 아들이 생기자 여러 질문이 생긴다.

- 내게 일어난 일이 내 아들에게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내가 아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 아들이 나에게서 배워서 남은 인생 동안 꼭 간직했으면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무너진 가족은 무너진 정체성을 남긴다. 이런 경험은 주변에 널리고 널렸다. 미국에서는 넷에 한 명 꼴로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산다. 이러한 아버지 부재의 현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 도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백 명의 아버지가 백 가지 대답을 할 것이다. 시티뉴욕 교회 (Church of the City New York)의 존 타이슨 (Jon Tyson) 목사가 쓴 ‘아버지 되고자 노력하는 아버지: 용기와 인격을 갖춘 아들로 키우기 위한 지침서’ (Intentional Father: A Practical Guide to Raise Sons of Courage and Character)는 바로 이 질문을 다룬다고, 이안 하버 (Ian Harber) 목사는 잘 정리해준다 (Be the Dad You Never Had: Review: ‘The Intentional Father’ by Jon Tyson).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날마다 아들에게 투자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의지의 아버지

고등학교 때, 친구와 나는 “의자 아빠”(chair dad)라는 말을 만들었다. 의자 아빠는 오후 5시가 넘어서 퇴근하면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스포츠 방송을 보다가 자러 들어간다. 친구네 아버지 대부분이 의자 아빠였기에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았다. 그렇다고 의자 아빠가 무슨 특별히 해로운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종종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과 미래에 대한 투자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들 교육에 관해서라면 자동항법조종장치를 켜놓고 살았다. 아들의 형성(formation)은 그냥 운에 맡겼다. 아들의 제자도를 위해 청소년 그룹이나 또는 집에서 더 떨어진 기독교 학교에 맡겼다. 그들에게 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직장에 나가 돈 벌고 안락한 집과 교육 제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의자에 앉은 채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타이슨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목표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견학하도록 돕는 것이다. 아들을 아버지를 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따라 아들이 결국에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아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막 아들을 대학에 보낸 타이슨은 아버지들에게 아들을 소년에서 성인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부재한 아버지가 주는 허상의 축복을 쫓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성년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소년들이 가진 문제를 본다. 타이슨은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아들이 인생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돕는다.

타이슨은 다섯 종류의 아버지를 설명한다. 무책임한 아버지, 무지한 아버지, 일관성 없는 아버지, 간섭하는 아버지, 의지의 아버지. 의도적인 아버지가 나머지 아버지와 다른 점은 아들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그 아들에게 맞는 양육 방식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의도적 아버지는 “이게 맞으니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지 않고 “이게 너한테 맞아”라고 한다. 결국, 타이슨의 책은 단순한 단계별 가이드가 아니다. 그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아들을 키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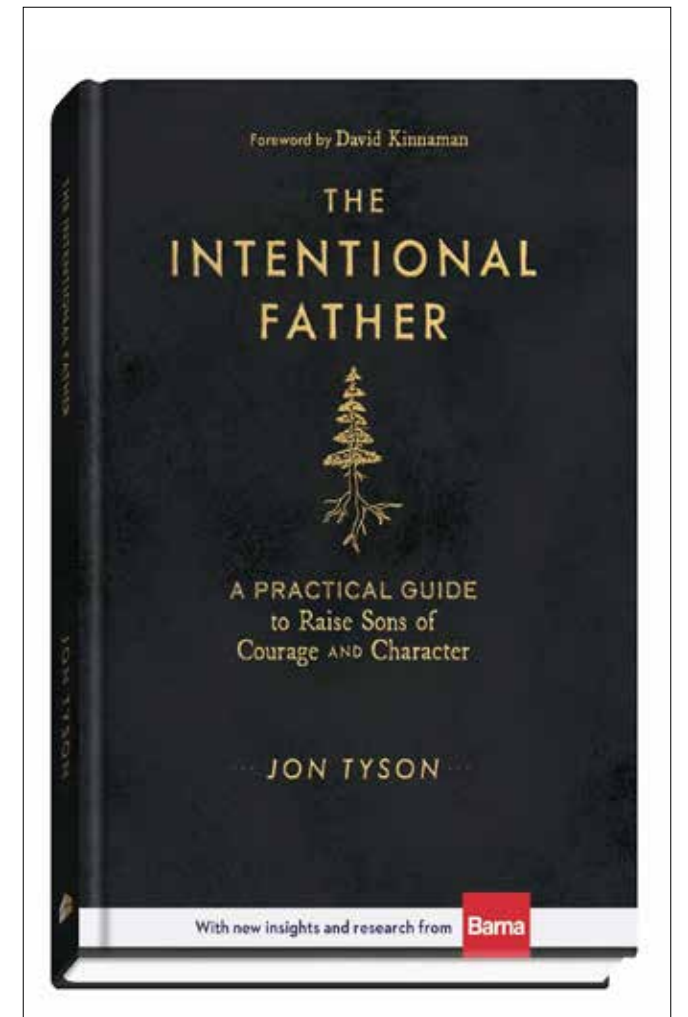
심대 자녀의 제자도를 청소년 그룹에 위탁하는 부모

가 넘치는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제자로 훈련해야 한다는 타이슨의 비전은 급진적이다. 더할 나위 없이 강렬한 비전이다.

타이슨이 청소년 목회자였을 때, 그는 자기가 사는 동네의 몇몇 아이들이 그가 만나는 교회 청소년들과 다른 점을 알아챘다. 그들은 모르몬교 신자였다. 그는 모르몬

교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무슨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는지 물었다. 대답은 모든 모르몬교 심대는 매일 등교 전에 “신학교”(seminary)에 참석하고, 학업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선교 여행을 간다는 것이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즈(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북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팀 켈러, 두란노;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먹다 듣다 걷다: 이아령, 두란노; 내 마음도 설곳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꽤 괜찮은 헤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낙태 없는 '포스트-Roe' ...

(1면에서 계속)
RN 서비스, 수업, 옹호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추정)이 든다면, 당신의 교회는 몇 명의 여성에게 두려움 대신 희망을 줄 수 있을까?

3. 강단에서 권면한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낙태를 받은 파트너의 남성 중 절반이 당시 기독교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의 여성이 낙태 당시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여성의 7%만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교회에서 논의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랑과 자비로운 지원으로 감싸인 부드러운 규칙적인 진리의 폭포수가 모든 교회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낙태, 계획되지 않은 임신, 그리고 각각을 둘러싼 어려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에 심판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한다.

4. 이야기 나누기

TPN에서 비디오, 팟캐스트,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것들이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다.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압력에 직면하여 삶을 선택한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연민을 형성하며 이러한 어려운 주제에 대한 대화를 정상화한다.

5. 멘토 역할

TPN에서는 연결 프로그램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과 교회의 여성을 연결하여 장기적이고 건강한 지원 네트워킹을 만든다. 우리는 이들에게 새로운 어머니들이 움직이는 트랙에서 짐을 내리고,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하고, 가구와 자동차를 기부하고, 진료 예약에 참석하고, 놀이 날짜를 조직하는 것을 돕도록 했다.

교회에서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젊은 어머니들은 출산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이 진정으로 혼자 아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지역 임신 센터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6. 여성과 가족을 돕는 지역 단체와의 관계 시작

여성,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5개 조직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연락하여 회의를 잡는다. 여기에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몇 명의 교인을 연락 담당자로 위임할 수 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 지역 임신 센터, 위탁 양육 기관, 산부인과 또는 카운티의 사회 복지부

7. 기도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참된 교회 생활 문화는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 내의 소규모 지도자 그룹으로 시작하거나 교회

전체의 기도 모임을 준비한다. 교회가 당신의 지역 사회 내에서 여성과 가족을 섬기기 위해 독특하게 갖추어진 방법을 제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낙태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위한 동정심 많은 사랑을 키워 주시기를 기도한다.

진생명 운동의 목표가 Roe를 뒤집는 것이라면, 그렇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Roe 이후의 세상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입법은 생명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공격, 즉 하나님 형상을 담은 자에 대한 공격이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공격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이다.



시론

과거의 거울을 보고 미래의 창문을 열라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역사 속에는 과거(過去)와 현재(現在)와 미래(未來)의 시간이 모두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는 오직 과거뿐이다. 현재는 아직 확인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고, 미래는 그 시간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과거로부터 흘러와 현재에 도달했다가 다음 구비로 휘몰아쳐가는 뒷모습을 남겨주며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로 다가올 역사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찾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여러 교단들의 총회가 열리는 계절, 총회 현장은 현실이다. 최근 2년여의 특별한 기간을 제외한다면 총회가 열리는 과거의 모습들은 매년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개회와 폐회예배가 있고, 성찬식도 있고, 회무처리를 위한 시간들 속에서 “법이요!”라는 외침도 있고, 때론 큰소리도 있고, 아마도 어떤 안전이나 선거를 위한 몰말자업들도 있었음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열린 post covid19의 첫 교단 총회가 지난 주에 열렸다. 별 다를 바 없는 순서와 진행이었지만 그 속에서 후안 엔리케스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대적 흐름 속에 현재의 우편환에 미래가 보내온 고소장이 배달되었다’는 화두를 이 시대를 향해 던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후안 엔리케스 교수의 말이 어디선가 들려왔다. “어느 날 당신의 책상 위에 고소장이 날아와 있다. 보낸 사람은 미래 세대다. 후손들이 미래의 법정에 당신을 소환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할머니는 왜 그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의 나에게 이 유전병을 물려주었나요?’, ‘역만장자 2,047명이 전 세계 극빈층의 가난을 일곱 번이나 끝낼 수 있었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의합니다”, “재정이요”, “가하시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라...” 이전과 다르지 않은 익숙한 단어들 들려오는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질문이 엔리케스 교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 “그때 왜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렇게 살면 오늘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될 것이라고 왜 좀 더 강력하게 경고해주지 않았어?”, “동성애나 마약의 위험과 불법에 대해 왜 더 진지하고 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어?”

유한(有限)은 무한(無限)을 연구할 수 없다. 둘러앉은 목사 장로들의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의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겠는가? 은혜가 무엇인가? 인간의 유한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교회는 그래서 종말 지향적이어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New Noraml의 시대에 교회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반 신앙적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동부전선 철책 몇 미터가 떨어진 사건도 중요하지만, 동해에서 서해바다까지 이어진 휴전선이 가진 의미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하듯이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떤 이슈 한가지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

과거가 거울이라면 미래는 창문이다.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조명해주면서 종말의 날까지 가야 할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고소장에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답하지 않으면 패소(敗訴)한다.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응해야 하고, 확실하고 철저하고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승소(勝訴)할 수 있다. 재판정에 서있는 것과 같은 오늘의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소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성경은 아주 간단한 승리의 원리를 다 알려주었다. 그 원리는 철저한 회개(悔改)와 바른 연결(纏結)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아야 한다. 성경적 역사관, 그 눈을 열어야 바른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djlee7777@gmail.com

"의도적인 아버지" ...

(2면에서 계속)

타이슨은 나날이 쇠퇴하는 교회의 미래를 바꾸려면 젊은 이들에 대한 우리의 제재도가 최소한 모르몬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이슨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일어나 책을 읽고, 기도하고, 삶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권장한다. 매주 아버지는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가치를 심어 주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아들을 “남자 학교”(man school)에 데려가야 한다. 아들이 열세 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얻은 상처를 먼저 스스로 다 치유해야 할 뿐 아니라, 아들과의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목표는 잘못된 남자 다움(macho)의 전형에 맞는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비전과 용기와 가치관

이 충만한 신실한 남자를 키우는 것이다. 타이슨은 이렇게 말한다.

“소년의 삶은 편안함,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아의 삶, 그 순간을 살기 위해 보낸 삶이다. 그러나 남자가 된다는 것의 아름다움은 어려움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며, 더 큰 대의에 가까이 굴복하고, 일사단결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는 것에 있다.”

“당신은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그 속에서 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맥락을 갖고,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보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랑받는지 아는 세상에서 자신감을 갖고 걷게 된다.”

타이슨이 하려는 것의 절반만 하는 아빠라면, 그는 대다수의 아빠들보다 더 의도적인 아버지일 것이다.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날마다 아들에게 투자하고, 미래에 대

한 비전을 주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세대를 치유할 마음에 꾸준한 사랑의 물방울을 뿌리는 것이 된다.

아버지 날은 항상 나에게 일 년 중 가장 힘든 날이었다. 아들이 태어나고 올해 들어서야 나는 그 안에서 구원의 희미한 빛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갖지 못한 아버지에게 대해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신 내가 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들어 주고 조언해 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꿈을 염망으로 만들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나 가능한 것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게 행동의 첫 번째 단계이다. 모르는 것에 관해서는 행동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항상 우리 가족의 유산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인도할 사람이 없이는 그 작업이 벅하게 느껴질 뿐이다.

아버지로서 우리는 아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타이슨은 이렇게 말한다.

“형성은 매일 발생한다. 왜곡도 매일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도 불 중 하나를 하고 있다. 아들이 제대로 된 성인이 되도록 돕고 있거나 아니면 결판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춘기에 갇힌 인간으로만들려는 이 시대 문화의 시도에 동참하고 있다.”

아들은 결코 그저 가끔씩 아버지가 내미는 약간의 손길이 필요한 백지 상태가 아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있던 없든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타이슨이 그리는 아버지의 길은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아들의 마음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는 아들의 마음을 가리킨다(다말 4:6).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동부(NY, NJ)교회</h2>				<p>뉴욕세사미네교회</p> <p>담임목사: 이지웅</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p> <p>Tel: (516)620-2004, www.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목양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진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8:45 수요 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 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02:00 주일 3부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212)342-2584, www.kbc.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새벽별주님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bmsch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어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8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망우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준성</p> <p>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8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p>뉴욕센트럴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욕주신양교회</p> <p>담임목사: 김희복</p> <p>주일예배: 오전 11:30 다린족공예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p> <p>Tel: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sford, NY 11373</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성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부, 3부)</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베이사이드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종식</p> <p>경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1부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 예배: 오전 5:45 진료특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8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p>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5분 주일학교: 오전 1:15분 찬양예배: 오후 3:15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613-1351, cheongs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사랑의동산교회</p> <p>담임목사: 장신용</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p>어린양개혁교회</p> <p>담임목사: 유승혜 M목사: 임지윤</p> <p>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9-2013</p>	<p>온누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문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p> <p>Tel: (845) 38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p>밴쿠버빌리델리아교회</p>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화, 금, 토) 6: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봉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i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브라질 서울교회</p>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8,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io S. Paulo Cep 01528-01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최광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송파기도회: 아침 7:40 유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p> <p>담임목사: 유문건</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8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한국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65-16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p> <p>선교사: 임한민 선교사</p> <p>1. 멕시코 바석 신학교 교수 2. 임아름 신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힘들지만 활짝 웃어라

카톡을 열었다. 후배는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반겼다. 몇 년 전 베를린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함께 말뚝 루터의 유적지를 순례했었다. 특히 루터가 법대생이었을 때 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방문하고 밀밭 사이 길로 돌아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대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벼락에 순식간에 친구는 죽어버렸다. 대화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 놀라운 상황은 루터도 하 여금 죽음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휘말리게 되었다.

루터는 자신도 모르게 옆드려 한번만 살려주시면 목숨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은 그를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고, 급기야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는 자리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체험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에서 후배는 해맑은 표정으로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미래를 약속받은 인생이었기에 항상 웃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후배는 작년에 직장 압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동안 방사능 치료를 스물 몇 번을 받은 후, 검사를 하고는 수치가 떨어질 줄을 모른다고 카톡에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동문 카톡 방에 올렸다. 아직 결

혼하지 않은 딸에 대한 얘기도 나누곤 했는데 말이다. 그는 여전히 카톡방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 지울 줄도 모르고, 또 지우기도 잊어서 그냥 두었다. 그가 먼저 갔지만, 언젠가는 나도 가겠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랑하는 아들 암살림의 죽음 앞에 애동하면서,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사람, 대단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 같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앞에 죽음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게 죽음이고, 조금 일찍 가거나 늦게 가는 차이 밖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달관했다는 뜻이 그는 항상 웃기를 즐겨했는지

모른다. 웃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광로 같은 것이다.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걱정도, 이유는 활짝 웃은 모습은 너무 밝아서 그들을 조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크다. 그것은 병상에 있을 때 찾아 가서 위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음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와 위로했던 세 친구들처럼 말이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기 때문에 방문 계획은 무참하게 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들을 보노라면 대부분 쾌활하게 웃는 모습이다. 카페를 마시기 위해 가끔 들

리는 바(BAR)의 벽면에는 배우들의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다. 현존하는 배우들보다는 세상을 떠난 배우들이 훨씬 많다. 그들은 대부분 활짝 웃고 있다. 후배의 모습처럼, 아마도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하는 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인지 모른다. 나도 안다, 나도 세상을 살아보았느니라. 힘들지만 활짝 웃어라. 그것이 고통스러운 표정보다는 낫다. 너의 활짝 웃는 모습에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카톡 사진에서 후배는 내게 말하는 것 같다. “선배도 항상 웃어요”라고, 서...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황의영 목사
SBM(기독교생활개혁운동)대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나는 반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떨하겠느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취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이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진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시는 실로 중차대한 사역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철저히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 사명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이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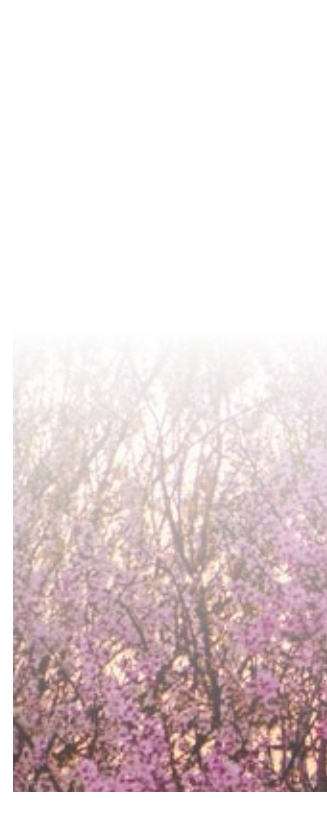
이제 그 비결을 터득하고 올바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ECHOING ministry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본문과 잘 어울리지 않는 생소한 말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직책과 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받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메아리치는 목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원칙을 깨닫게 됨은 물론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해하여 과거보다 더욱 열심히 봉사하며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뜻을 온전히 성취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한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마땅히 불을 질러야 합니다. 나아가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잘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



기까지 답답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를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응어리진 통증과 답답함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불을 지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 즉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며 답답해하셨던 그 통증을 깊이 느끼는 체험이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체득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일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르고 또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면 아예 예수님을 따를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4:16).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에게 불이 붙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불이 붙어야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호렘산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회상하며 노후를 노래했습니다(시 90:1-17). 그런 가운데 가시나루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출 3:2). 그 불꽃이 모세의 가슴에 옮겨 붙어서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내에서 쳐 죽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왕상 18:19-40).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120 문도가 성령을 대망하며 오로

님의 명을 따라 모세가 지은 회막 안에 불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불씨가 담겨 있었었습니다. 그 불뿔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출 25:38; 37:23). 불씨는 아주 작지만 일단 주변에 옮겨 불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약 3:5)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불씨가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등에 기름이 있어도 만일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등불이 환하게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같은 원리에 의해 만일 등에 기름이 없다면 심지에 불을 붙여도 도저히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지만 타들어가면서 아주 고약한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꽃 가운데 강림 하셨습니다(행 2:3). 그리하여 각 사람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불들이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속에 항상 불뿔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 이제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다 불을 질러야 합니다.

나에게 불뿔이 살아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옮겨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불뿔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 말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혹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성도들이 머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좋고 신앙인격이 훌륭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성이 살아 있고 활력이 넘치는 행동하는 신앙과 거리가 멀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덩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13-17,26)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동사적인 측면으로 목회의 패러다임(paradigm)을 확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ECHOING Ministry입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훈련받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굳이 부대끼기 싫어서 쉽게 양보하고 맙니다. 이것은 사명을 여기고 직무를 유기하는 큰 실책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리와 원칙을 가르치는 명사적인 목회 방식을 탈피하고 실천을 강력히 추구하는 메아리치는 동사적인 목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 자신이 메아리치는 목회의 당위성을 깨닫고 특별한 각오로 그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메아리치는 신앙생활이 왜 시급하게 요구되며, 얼마나 중요한 지를 폭넓게 교육해야 합니다. 모두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할 것입니다. 복음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신앙화로 이어 반드시 신앙의 생활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ECHOING MINISTRY” 누가복음 12:49-51



한 마디로 원리와 원칙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그렇고 성경공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진리를 깊이 연구하여 자세히 풀어 가르치면 물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으며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역시 성도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잘 가르쳤다고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끼칠까 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원리와 원칙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은혜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잔뜩 쌓여간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내재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도 자기 혼자서만 만족하는데 그치고 마니까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냥(a match)이 있어야 하고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등을 준비했으나 그 등 안에 기름을 넣지 않은 처녀들은 신앙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허둥지둥 기름을 넣고 뒤늦게 달려왔으나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마 15:1-12).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긴급 기도요청!! Roe v Wade 판결 초안 유출 내용에 대법관 판사들 개인 집 앞까지 진을 치고 위협하며 무법 시위를 펼치고 있는 낙태 지지 시위대들!!



태아생명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사들 사진을 들고 시위하는 낙태운동가들

이들은 심지어, 교회, 성당, 기독교 여성 클리닉까지 몰려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고 클리닉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Roe v Wade를 이용하여 미국은 지금,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작은 태아부터 태어나기 직전의 24주 건강한 태아 낙태와 아기 살인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My Body, My Choice"는 "사회정의 실현"일까요??

Roe v Wade 케이스의 간략한 논쟁 포인트:

죽은 태아에겐 엄마와 아빠가 있었습니까. 모든 아이들에겐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Roe v Wade 가 overturn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새어 나오자마자, 극좌파 안티파 운동가들이 Molotov cocktail firebomb을 Madison, Wisconsin에 있는 (여성과 아기보호 Pro-Life Clinic)에 던져서 불을 지름. Mother's Day Weekend 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 예상

다. 원하는 원치 않든, 이들은 한남자와 한여성의 관계를 통해 생기는 귀한 인간 생명이며 엄마 아빠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형

상으로 창조된 태아입니다. 그런데...

1. 살인이 사회정의? - 임신부의 무책임한 선택의 결과(낙태)가, 아무 죄 없는 태아를 처참한 죽음으로 몰고 가면 그것이 "Women's Choice"이고 사회정의 실현 일까요?

2. 문란한 성이 사회정의? - 공립학교에서 "safe sex" 라면서 콘돔을 주고 아무 때나 성관계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교육정책과 악법들이 과연 사회정의 실현일까요?

3. 예외적 케이스가 전체를 대변하나? - 1%도 안 되는 강간과 0.5%의 친척 강간(때문에 99%의 남녀(엄마와아빠)의 무책임한 선택

의 결과를 세상에서 최고로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태아들이 치루어야 할, 받아야 할 벌칙인가요? 태아들이 지은 죄명은 무엇인가요? 행여 높지 않아서 5%의 강간이라고 해도, 역시 95%의 우리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4. 태아는 인간 생명인가? - Roe v Wade는 태아가 인간임을 부인하고 있

기에 지난 10년간 위 사진보다 더 처참하고 잔인한 낙태를 "여성의 선택, 여성보호"라는 듣기 좋은 이름 아래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5. 낙태 반대 권한조차 없는 대법관? - 총 9명의 대법원 판사들 중, 하나님을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진정 어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 3

명을 우선은 집중 마녀사냥 하려는 세력들이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법에 대한 권위를 흔들고 근간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들은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걸까요?

6. 낙태 VS. 태아생명 보호는 미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 더 이상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며 그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과 영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7. 태아에겐 살수있는 옵션을 주어야 한다 - 태아는 인간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아기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옵션은 언제나 있습니다.

8. Roe v Wade(로 대 웨이드)를 overturn 하는 것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진정, 엄마의 생명에 위협이 되어 꼭 필요한 낙태라면 그런 낙태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며 계속 허용될 것입니다.

9. 극히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살인적인 낙태들

을 금지하기 위한 것! - 지난 49년간, 특별히 지난 10년간, 여성의 건강 때문에 낙태가 실행된 것보다 무책임한 공립학교의 성교육과 오바마와 현 바이든과 그 행정부의 부분별한 Pro-Abortion(낙태추구) 정책들로 인해 결국 피해를 받고있는 대상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심대 자녀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로운 낙태



사무엘 엘리토 대법원판사를 모기처럼 손바닥으로 의째라 라는 간판

가 부모들의 허락 없이 실행되는 것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0. Roe v Wade가 overturn 되면, 법적으로 미국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돈의 욕심을 내는 낙태 대기업들과 그 세력들의 악행들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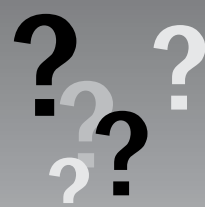
"사회정의실현"을 한다는 안티파, 극좌파들의 역지와 폭력, 난동!

- 1. 기독교 여성 클리닉에 Firebomb 터뜨리다!
- 2. Pro-Life 대법관들 개인 집앞까지 와서 소리치르고 폭동을 일으키는 낙태 운동가, 지지자들 :

이들은 어린 자녀들과 가정이 있는 보수성향의 브렛 커버너, 사무엘 알리토, 존 로버트 대법원장들의 집앞까지 가서 난동, 폭력, 언행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목사님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요절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1)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해석과 2)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 사랑의 교회 Y집사

A: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박국 2:4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 원문으로 "호 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ho de dikaios ek pisteos zesetai) 입니다. 이것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에크피스테오스"가 주어인 "디카이오스(의인)"에 붙이느냐 아니면 동사인 "제세타이(살리라)"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주어에 붙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로서 교리(doctrine)입니다. 그런데 동사인 "제세타이"에 붙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인데 이것은 윤리(ethics)입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다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살아야지요!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입니다.(교리) 여기에 살리라는 헬라 원어로 '자오'로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1) 비오스(bios)-이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여기서 Biology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생명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은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have a eternal life)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입니다.(윤리). 롬1:17의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어떤 분은 "이것은 영적 성숙으로 들어간다"고 해석하나 여기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 NIV 성경을 보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도 믿음, 끝도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구원 얻는 것도 믿음이고 믿은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Sola fide)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 상담가로 신문과 방송과 전화를 통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남편 죽은 장례식에서 어느 권사님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목사님! 현재 심일조를 드리지 않아도 나의 생활이 빠듯하고 힘든데 심일조를 드리면 더 힘들 텐데 그래도 심일조를 드려야 하는지요?" 등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늘 동일합니다. "어떻게는 어떻게요, 그래도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살아야지요!" 혹은 어떻게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Sola Scriptura)대로 살아야지요!"



36th Anniversary

달라스 캠퍼스 편, 입학 안내

Dallas Site에 오픈하는 과정

Dallas 지역에서 등록하는 학생들을 위한 1-20 직접 발행

ESL Program ESL, Aviation English
Pilot Certificate(FAA) 조종사라이선스, 정비사라이선스
Diploma 신학, 기독교교육, 크리스찬카운셀링, 선교, 리더십

Degree Programs 학위과정

B.A. 신학, 기독교교육
M.Div. 목회, 선교목회, 상담목회, 교육목회, 목사리더십
D.Min. 카운셀링, 교육, 선교, 목회신학, 목사리더십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연구원, 교환교수, 인턴십을 위한 DS-2019 자체발행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연어에 구매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On-line Programs or Main Campus

국제항공 대학(원) BS, MBA, Ph.D.
경영 대학(원) BA, MBA, Ph.D.
국방 대학원 MBA, Ph.D.
교육 대학원 MA TESOL, MA Education, Ph.D.
리더십 대학원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상담심리 대학원 MA, Ph.D.
음악, 문화예술 대학원 MM, DMA, Ph.D.
신학 대학(원) BA, M.Div, D.Min, Ph.D.

학교소개

-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 인준 USDE & CHEA
-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CHEA) www.chea.org
- ABHE - Accredited Status
- 국제비즈니스 학점 인정기관 (IACBE) Educational Member.
- 국제 항공 안전협회 ISASI 회원대학교.
- NC-SARA (www.nc-sara.org) 인준대학교
-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RI) 연구소



Midwest University 국제항공대학

항공경영학사 과정
항공경영, 조종사, 정비사, 항공운항사, 승무원
FAA Certificate - 국제 조종사, 정비사 라이선스 과정
MBA - 항공 안전보안
Ph.D. - 국제항공 경영 리더십

Midwest University- Dalla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usa@midwest.edu
www.midwest.edu (636) 327- 4645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스승의 은혜

초록의 생명 빛이 가장 싱그럽게 반짝거리는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인 만큼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날들도 많다. 흔히 잘 알고 있는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 날(5/15) 외에 근로자의 날(5/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부부의 날(5/21),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바다의 날(5/31)이 공식기념일로 제정되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다. 각 자치

단체와 지역의 축제와 행사까지 찾아보면 5월의 하루하루는 특별함을 가득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나에게 이제 한국의 기념일들은 하루하루 일상 속에 잊혀지고 몇몇 기념일은 낯설기까지 하다. 며칠 전 한국에서 유치원 원장을 할 때 함께 일했던 선생님께 메시지가 왔다. 우리 원에서 대학 재학 중 실습을 했고, 졸업 후 함께 일했던 선생님님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안부 인사를 전하며 지내

고 있다. 이제 원장이 된 선생님은 5월 '스승의 날'이 되면 내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했던 자신에게 늘 잘한다고 칭찬만 해 주셨는데, 막상 자신이 원장이 되어보니 선생님들의 잘하는 모습보다는 부족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더 먼저 보여 괴롭고 힘들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메시지에 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 원장님이며 함께 하는 동안 분명히 나도 부족한 점이 더 많았을 텐데 다 잊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어 내가 더 고맙다고 했다. 코로나로 유치원 운영이 많이 힘든 때에 잊지 않고 기도로 함께 하겠다고 답장했다. 선생님 덕분에 나도 잊고 지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레 스승의 은혜 노래가 떠올랐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란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학창 시절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누구나 한 번씩 불러봤

을 것이다. 국민동요 '꽃밭에서' 등 평생 200곡이 넘는 동요를 작곡한 동요 작곡가 권길상이 곡을 쓰고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등으로 너무나 친숙한 노랫말을 쓴 아동문학가 강소천이 노랫말을 붙였다. 스승의 날인 5월 15일은 세종대왕이 나신 날이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야말로 겨레의 가장 큰 스승임을 자각하는 뜻에서 1965년에 지정된 날이다. 스승이란 가르침과 삶이 내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 가르치고 보살피는 삶은 모두 존경받아 마땅하니 꼭 교직에 있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가르치고 보살펴준 모든 분들이 스승일 것이다. 18년 전 시카고 게렛신학교에서 첫 미국 생활을 시작한 우리 부부에게도 스승이신 목사님 부부가 계시다. 연합감리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조은철 목사님과 조시자 사모님이시다. 한국에서 온 자녀 나이의 어린

유학생 부부인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가르치고 보살피 주신다. 한인 이민교회와 미국인 회중 교회를 모두 사역하신 목사님께서서는 남편이 목회에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언제든지 연락드리면, 경험과 지혜로 가르쳐주시고, 사모님께서서는 너무 심한 입덧으로 일상조차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시는 바쁜 가운데도 맛있는 음식을 예쁘게 담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돌아가는 남편 손에 항상 보내주셨다. 가까이 함께했던 두 분 삶의 모든 모습이 배울 것으로 가득한 가르침과 보살핌이었다. 3년 후 그곳을 떠날 때 선물해 주신 시편 23편 묵판인쇄 말씀은 언제나 우리 집 거실 가장 중앙에 걸려있다. 이번 칼럼을 쓰며 '스승의 은혜' 가사를 다시 찾아 적어보니 우리가 잘 아는 1절 가사도 아름답지만, 잘 몰랐던 2, 3절의 가사에 눈시울이 붙어진다. 미국 이민 생활에 마음의 어버이 되어주신, 시카고에 계신

두 분 스승님께 다시 빌 때까지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가사를 조금 바꾸어 노래 해 본다.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위해 교회위해 일하오리다.' 1.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람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 태산 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람 떠나며는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람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3.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람 깊은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해 겨레 위해 일하오리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람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조용기 목사 기념홀 개관

조용기 목사(1936~2021) 기념홀이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문을 열었다. 교회 1층 로비 안쪽에 250㎡(약 75평) 규모로 마련된 기념홀에는 조 목사의 다양한 유품과 그의 목회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소품들이 전시돼 있다.



기념홀 양쪽 벽에는 조 목사의 출생과 성장, 동역자들과의 만남, 교회 개척과 부흥 등 교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판이 파노라마처럼 연결돼 있다. 기념홀 중앙에는 조 목사가 지니고 다녔던 성경책과 설교를 요약한 자필 메모지, 상담카드, 설교 카세트테이프와 레코딩관, 교회 초창기 주보를 비롯한 유품을 볼 수 있다.

생전에 입었던 설교 가운과 넥타이를 비롯해 설교 전에 종종 복용했다는 우황청심원도 눈에 띄었다. 조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60년 넘게 설교했지만 설교 전에는 늘 긴장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기념홀 안쪽에는 생전의 집무실을 원래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조 목사의 육성 설교가 흘러나왔다.

이영훈 목사는 이날 개관식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역사는 그 제자들과 선교와 사랑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오늘 교회 내 기념관 개관에 이어 추후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도 기념관을 마련해 많은 이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속 대표로 참석한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은 "기념관은 기억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 시골 소년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신 것을 기록한 곳"이라며 "앞으로 제2, 제3의 조용기로 쓰임 받는 일꾼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드라마에서 '신앙' 을 끌어올린다

'나를 추앙해요'라는 유행어로 유명한 히해방일지와 더불어 웹드라마 '파친코'의 경우, 다양한 관점 속에서 기독교적 해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학자와 기독교 문화사학자들을 통해 이들 드라마가 시대와 문화,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들여다 봤다.



△해방·구원·사랑의 메시지를 담다 "전 해방이 좋아요. 해방되고 싶어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꼭 막힌 인생에서 저마다 탈출을 꿈꾸는 3남매 이야기를 다룬 나의 해방일지 주인공 염미정의 하소연이다. 문화선교연구원 임주는 연구원은 11일 "(드라마 속에서) 3남매는 각자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한다"면서 "완전한 해방은 인간관계와 사랑으로 회귀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미정은 "우리는 부모로부터

터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극중 인물들은 '추앙'을 받으면서까지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 한다.

염미정이 알콜중독자인 구씨에게 "낮부터 술을 마시는 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를 추앙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렇다. 임 연구원은 "저마다 구원의 대상을 찾고 목말라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상대방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지지를 의미하는 추앙은 가치 있는 사랑의 방식"이라며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 드라마를 통해 기독교적인 추앙의 참 뜻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중엔 남자주인공 구씨가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겁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두려워말라'(막 6:50)는 성경구절이 적힌 교회 벽 플랜카드를 응시하는 장면도 인상 깊게 다가온다.

△"고난 속 참신앙의 모습 그려보게 해" 한인 이민 가족 4대의 삶을 그린 파친코는 기독교 신앙을 지닌 등장인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든다. 원작자인 이민진 작가의 할아버지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출신으로, 기독교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기도 하다.

"난 내 자식이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재량껏 살았으면 좋겠어." 극중 한국인 목사 이삭의 말인데, 이 드라마의 명대사로 꼽힌다.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에게 자기 삶의 윤곽(방식)이 무엇인지,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을 던져주는 메시지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극중에는 이삭 노아 요셉 나오미 솔로몬 등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김 교수는 "기독교인인 작가가 이 작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킨 것 같다"면서 "고난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낸 출애굽 사건을 작품에서 일제강점기 상황으로 녹여냈는데 기독교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우린 운을 조작하지는 않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잃은 사람 옆에서는 슬퍼해 주고, 돈을 딴 사람 옆에서는 박수치며 함께 기뻐해 주는 거야." 극 중 모자수(모세)의 대사를 두고 백소영 강남대 기독교학과 교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미국 졸업식에서 감동 인건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세계적인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휘튼 대학교(Wheaton College) 163회 졸업식에서 설교자로 나섰다. 김 목사는 지난 7일 휘튼 대학원 졸업식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 말씀을 본문 삼아 '복음의 힘'이라는 주제로, 8일 학부 졸업식에서는 여호수아 24장 14절~15절 말씀으로 '선택사



항 (Choices)'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 목사는 "지금 미국은 부흥의 불길들이 많이 식어가고 있다. 미국 기독교 역사의 많은 주역을 배출한 휘튼대학교의 졸업생 여러분이 다시 이 나라에 부흥을 일으켜야 할 주역이 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미국은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믿음의 선배들이 일으켰던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이 이어줘야 한다"며 "그 기도의 불길이 미국 전역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의 기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는다"고 당부했다. 휘튼대학교는 1860년에 설립된 기독교 명문 사립대학교이다. 철저한 복음주의에 입각해 기독교 정신이 투철한 학교로 유명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비롯한 짐 엘리엇 선교사, 존 파이퍼 목사, 사무엘 마켓 선교사, 필립 안시 기독교 작가 등 다수의 유명 기독교 인사들을 배출했다.

본회퍼, 순교 77주년 기념 뮤지컬 '위대한 결단'

'행동하는 양심' 디트리히 본회퍼(1906~1945) 목사 순교 77주년 기념 뮤지컬 모노드라마 '위대한 결단(The Great Decision)'이 오는 16일부터 21일



까지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연된다. 장신대 개교 121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뮤지컬은 평일 오후 7시 30분, 수·토요일 오후 3시에 각각 열린다. 이어 오는 9월에는 대극장 공연과 내년 2월 독일 베를린 현지 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 작품은 본회퍼 목사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되는 길을 안내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모노드라마로 선보이는 이 작품은 본래 대극장 공연용으로 기획됐으며, 본회퍼 목사의 초기 신앙인 때부터 순교하는 순간까지 1·2부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으로 잘 알려진 '발키리 작전' 가담 이후부터의 이야기가 담겼다. 극본과 본회퍼 목사 역을 맡은 김성택 정화예술대학 부교수는 13일 "신학자 본회퍼가 아닌 한 신앙인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 대본을 썼다"고 설명했다. 작품에는 본회퍼가 목사로서 발키리 작전에 참여하기까지의 인간적 고뇌가 잘 스며들어 있다. 본회퍼 목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작자 송미란 극단 창조 대표는 "인간의 최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인물"이라며 "본회퍼라는 인물을 재조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본회퍼 목사의 희생과 용서의 삶을 담은 뮤지컬 넘버는 '주께서 날 부르시네' '암살, 이 고통 끝낼 수만 있다면' '선한 능력으로' '값 비싼 은혜의 길'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누구인가' '새로운 내일을 위해' '내가 처음 왔던 그곳으로' 등 8곡이다. 모두 강인구 작곡가가 맡았다. 송 대표는 "기독교인들이 잃었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본회퍼는 1906년 독일 프로이센에서 태어났다. 1942년 동지들과 함께 만나치 지하조직을 주도하다가 1943년 게슈타포에게 체포돼 베를린의 티겔하르투소에 수감됐다. 1944년 7월 20일 동지들과 함께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945년 4월 미군의 진출 직전 플뢰센베르크의 수용소에서 처형됐다. 유작으로 '육중서간' 등이 있다.

미 상원, 낙태권 입법 무산... 힘 받는 생명권

미국 상원에서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한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태아 생명권 보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힘을 받게 됐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 실시 여부를 묻은 결과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집계돼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5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의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미국에서조차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추세로 이어지자 한국에서 태아 생명권 보장을 외치는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봉화 바른미래당여성연합 상임대표는 12일 "많이 기다려 왔던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반색했다. 그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6개월 이후에도 낙태가 가능한 무시무시한 법이었다"며 "해당 판결이 이뤄진 당시만 해도 태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부족해 태아를 그저 세포로 여겼지만, 이후 의학의 발달로 6주 된 태아부터는 심장 이 뛰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다. 낙태를 무작정 허용한 해당 판례에 문제가 제기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한국 사회도 낙태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위험성을 인식해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거리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는 아름다운 피켓 대표 서윤화 목사도 "그동안 낙태 합법화를 외친 이들이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무색해질 수 있는 결과"라며 "미국도 낙태 합법화라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런 결정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낙태 관련 법률안만 6개에 이른다. 이 중 태아의 생명 존중을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조해진 의원이 2020년 11월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들 법안에는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약물 낙태와 낙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자는 의미이다. 하지만 같은 해 각 법안의 관할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진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대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이 하루빨리 입법되게끔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태아의 소중함과 낙태로 인해 산모에게 가해지는 위험성을 알리는 '생명 트러블'을 운영하며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도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한국도 이제라도 미국의 이런 흐름을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6. 안창호(1885-1966)

죽사(竹史) 안창호(安昌鎬)는 1885년에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에서 태어나 1901년에 최병헌 권사의 딸 최베세와 결혼하여 레아, 신아, 철영을 두었다. 1903년에 배재학당을 나와 인천 내리교회 영화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1906년에 공주지방의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의 어학 선생으로 활동하던 중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191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안지방 순회목사로 파송 받았는데 1915년에 천안읍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윤치호 등과 국공운동 자금조달에 협력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배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 한국 민족정신을 일깨웠다. 1919년 3월에 천안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공주형무소에 갇혀 6개월간 고초를 당했다. 출옥한 그는 일본 경찰을 피해 진남포와 사리원 등을 옮겨 가면서 목회를 하던 중 조선 감리교회가 그를 1927년 3월에 하와이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단은 여러 해 전에 7,500달러로 와히아와에서 기지를 구매하고, 그 해에 와히아와에 국어학교를 개교하였는데 1929년 5월에 등록한 전체 학생수는 약 250명이었고, 지난 5월에 제2회 개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1929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호황 누아누 청년회 한인부 주최로 와히아와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여 가와도 한

기수의 흐뭇한 기쁨이 흥안에 가득하였다고 한다. 그해 9월에 오후 농촌조선 학회와 세 지방에서 각각 지방회를 소집하고 지방 회장을 선정하였을 때 와히아와 지방회장은 최월별이 되었고, 와일루아 지방회장은 이모세였고, 와이바우 지방 인도자는 최봉희였다. 다음 달 10월 10일 저녁에 80여 명이 와히아와 기독교회에서 모여 헌법 개정, 회원 모집, 중앙 임원 선정, 일년 계획 등을 하였고, 그해 11월호 한미보 영문보는 주필 강영각의 지도하에 농촌학생회원이 편찬하였다. 그달 19일 저녁에 와히아와 교회에서 200여 명의 교인이 모인 가운데 최근에 호황교회에 새로 부임한 변흥구 목사 환영회를 크게 개최하였다.

1930년에 2명의 전도사와 함께 안창호는 와히아와 교회를 섬겼다. 한 해 동안 5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았고, 성인 2명이 세례를 받았고, 7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어린이 57명이 세례를 받았다. 교회학교 교사 5명 아래 등록한 학생은 60명이었고, 평균 50명이 출석하였다. 이듬해 1931년 3월에 와히아와 감리교회와 와히아와 기독교회가 연합하여 와히아와 기독교회 예배당에서 삼일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공동회화장 오 운의 사회로 강영각이 영어로 취지를 설명한 후 안창호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어서 박동완의 연설,

안창호는 김 구의 특무공작에 찬성하여 하와이 애국단이 1931년 11월에 1,000달러를 후원할 때 협력했다.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에 동경 한복판에서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을 향해 폭탄을 던졌는데 비록 실패했지만, 조선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과시했다. 1932년 4월에는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개최한 일본 천황 친정절과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행사에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 중국 장제스는 윤봉길 의거에 '중국의 100만이 넘는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하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돕게 되었다. 그해 5월에 상하이에서 건너온 현 순으로부터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를 들은 후 후원회를 조직하여 매년 12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

1933년 3월 1일에 와히아와 지방 동포 약 400명이 상동리 예배당에 모여 삼일절 행사가 있었다. 개회한 후 애국가를 부른 뒤 안창호가 기도했다. 이어 주석 임성우의 취지 설명, 최창덕의 독립선언서 낭독, 배영 국어학교 생도의 참가, 오 운의 연설, 감리교 국어생도의 참가, 강영각의 '만주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영어 연설, 조미구락부원의 참가가 순서대로 있던 다음 안창호가 연설하였고, 최선주가 독립기념모집 소개가 있었다. 그달에 본 교회에



1936년 난징에서 환갑을 맞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국무령이었던 김 구는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안창호에게 이순신의 시 한 구절을 써서 유목을 보냈다.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 그해 안창호는 전도사 2명과 함께 와히아와 교회를 섬겼고, 한 해 동안 어린이 12명이 세례를 받았고, 학습교인인 85명이었으며, 학습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가 85명이었고, 고등 영렛 청년회원이 20명인 반면에 초, 중등 영렛 청년회원은 15명이었다. 그리고 예배당과 예배당 대지는 700달러인 반면에 사택과 사택 대지는 두배가 되는 1,500달러였다.

“김 구의 특무공작에 찬성하여 하와이 애국단이 후원할 때 협력”

도미한 그해 안창호는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 받아 주일학교와 국어학교를 위해 직접 교재를 만들어 교포 2세의 기독교와 민족 교육에 힘썼다. 교회가 흥왕하여 이듬해 8월에 교인이 200달러를 헌금하고, 감리교 본부에서 800달러를 보조하여 목사실을 건축했다. 그해 12월 25일에 조미구락부 제3회 창립기념식이 일반회원 등 3, 4백 명이 모인 가운데 와히아와 동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오 운의 주례하에 종일 예식을 했는데 부인들의 참가와 함께 안창호는 박동완과 더불어 연설했다. 그해 본 교회에 2명의 전도사가 있었고, 한 해 동안 성인 2명이 세례를 받았고, 유아 10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아동 69명이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인 4명이 학습을 받았고, 교회학교에 35명이 등록하여 평균 30명이 출석했다. 1928년에도 안창호는 와히아와 교회로 파송되었다. 그해 아동 16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71명이 교육받아 세례를 받았으며, 그해 학습교인은 20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3명이었다. 교회학교는 전 해와 같이 35명이 등록하여 평균 30명이 출석하였다. 하와이 대조선 독립

인감리교회의 현 순이 적합한 설교를 하여 청년은 물론 온 교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 오후우심 각 농촌에 거주하는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 90여 명이 그해 12월에 와히아와 교회에서 모여 농촌학생 연합회를 조직하고, 고문에 와히아와 교회 권사 강영각을 추대했다. 이날 지방회를 설치하고 지방 임원도 선정하였다. 그해 1년간 31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어린이 55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7명이 학습교인이 되었다.

와히아와에서는 교민단, 독립단 그리고 동지회에 속한 회원들이 함께 1930년 3월 1일에 삼일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별히 오후 우심 농장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위의 정치 집단을 내세우지 않고 특별 기념기금을 거두어 영구한 독립기초를 마련하기로 하고, 와히아와 지방에서는 최선주가 주선하여 매달 일 인당 1달러씩 거두기로 하였고, 이곳의 두 한국학교도 병합하기로 했는데 안창호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보인다. 그해 7월에 와히아와 교회의 기둥이며 모든 사업에 큰 노력을 한 김기순이 환갑을 맞아 큰 잔치를 배설하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창호의 사회로 축하식을 거행하였는데 김

최창덕의 기도, 두 교회 여학생 합창이 있었다. 그날 저녁에는 와히아와 감리교회에서 농촌 학생회원 200여 명과 학부형이 모여 특별 순서를 진행하였다. 회장 최호성의 사회로 안창호는 민진호, 최창덕과 함께 삼일 정신에 대하여 연설하였으며, 고문 강영각은 회원들에게 책임 있게 살기를 권면하였고, 음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였으며, 이날 활동사진까지 촬영하였다.

오래전부터 계획한 예배당 건축 낙성식이 마침내 그해 8월 9일 오후 2시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폭이 60척, 길이가 40척이며, 한편에는 주일학교와 국어학교로 사용할 방이 두 칸이며, 또 한편에는 예배실이 있었다. 교인이 현금한 총 1,100달러 중 교인네 명이 100달러를 헌금했고, 총회가 3,000달러를 보충하였다. 신축 예배당을 보는 사람마다 하와이에 있는 한인 예배당 중에 제일 아름답다고 칭송하여 이를 듣는 교인은 매우 기뻐했다. 그해 전도사 2명과 본 교회를 섬기면서 한 해 동안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37명이었고, 성인은 39명이었고, 안창호는 하와이 연회 내지선교/교회확장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벧 청년회는 많은 진보가 있는 가운데 그달 12일에 하와이 해변에서 소창회를 배설하고 70여 남녀 청년이 모였다. 그달에 최승욱의 차남 길벗과 손진수의 장녀 탄실의 약혼식이 있었다. 다음 달 4월에는 맹정호 부부가 환국하고, 여러 달 전에 환국하였던 안경문에 이어 그의 부인과 딸 또라가 수달 전에 환국하여 조섭하였는데 그해 5월에 안창호도 조선에 여행 가서 8월에 귀국했다. 그해 안창호는 전도사 1명과 동역하면서 어린이 10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성인에게는 세례를 주지 못했지만, 성인 5명이 새로 교회에 출석했다.

1934년 4월에 호황 교회에서 이만한 황도인 부부가 연로한 몸을 이끌고 교인들을 심방하여 교회가 더욱 흥왕하게 되어 감사하였다. 이듬해 9월에 5년 전에 도미하여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박아람이 아버지 박인규를 방문하여 기뻐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병섭 부인을 위해 환영회를 배설하고 환영하였다. 그해 안창호는 전도사 2명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어린이 14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어린이 세례자수가 65명이었고, 성인 교인이 87명이었으며, 성인 5명이 다른 교회로 이명하였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오후예배: 오후 2: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579-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6:00 다민족연합기도: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2) 749-9829, www.omchurch.org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8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동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성경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8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벤틀교회</p> <p>담임목사: 백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다민족: 오전 10:00 영 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8,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영 아 예배: 매 주일 세례예배: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후 7:00(목) 세 번 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Tel: (702) 423-9700, Cel: (213) 703-9961 5522 Old Bethel Rd, Crestview, NV 89136</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일칸사 제자들과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운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토요성경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창호</p> <p>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 536-6675, www.tbcom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말씀과 땅 (9) - 너를 이끌어 낸 여호와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행7:2-4)

창세기 11-12장의 맥락에서 사도행전 7:2-4를 읽으면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이 있다(행7:4). 하지만 창세기 11-12장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그 아버지가 하란의 히브리어 하란을 떠난 후에도 육십 년을 더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

라가 죽은 후가 된다. 성경을 살필 때 사본 비교가 중요한 예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아브라함이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행7:3)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라는 것이다(행7:2). 하지만 창세기 12:1에서 아브라함이 이 지시를 받은 것은 “하란에 있기 전”이 아닌 하란에 있을 때였다. 그리고 이 지시를 따라 하란을 떠났던 것이다(창12:4). 그렇다면 스테반은 무엇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란에 있기 전”이라 한 것일까?

우선 스테반 당시를 살피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시작되었다는 이해는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 유대인들 사이에 당연시된

개념서 그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내셨다 말씀하신 바 있다(창15:7).

이렇게 볼 때, 비록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경험한 것은 하란에서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을 설명하는 성경의 일관된 시각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결국,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창11:31) 했다는 데라의 계획과 의지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 사건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데라가 이민자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손자와 또 다른 아들 아브람, 자부 사래를 이끌고 이민길에 오른 데

에게도 같은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과 미래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는 고백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브라함으로 살게 되었든 것처럼, 오늘날 이민 1세의 자녀를 역시 그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옮기셨느니라”(행7:4)는 표현의 배경을 살펴보자. 그 배경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느헤미야 9:7인데,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 24:3과 창세기 15:7로 거슬러

아브람도... 이민 1세 자녀들도... “이 땅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

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 오세”(창12:4).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을 낳아(창11:26) “이백오 세”에 죽었기 때문이다(창11:32). 계산해보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백사십오 세가 되니 그 후 데라가 죽기까지 육십 년의 기간이 더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란을 떠났다는 사도행전의 언급은 창세기 11-12장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본학적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한 글자씩 개정 번역의 바탕이 되는 구약 원본은 마소라(Massorah) 전통의 히브리어 사본과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Septuagint)인데, “이백오 세”는 바로 이 사본들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전통의 사본인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은 데라의 연수를 “백사십오 세”로 기록하고 있기에, 이 후자를 따른다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난 것은 스테반의 설교에 언급된 대로 정확히 그 아버지 데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로(Philo, 아브라함 71)나 요세푸스(Josephus, 유대 고대사 1.7.1)의 글이 이를 잘 반영한다. 따라서 스테반은 그의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신과 그의 유대인 청중이 가졌던 이해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이해의 토대는 신약시대 이전, 구약 성경 안에 이미 등장하고 있다. 느헤미야 시대에 율법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표현을 썼다(느9:7). 또,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역사를 되짚으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낸” 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다(수24:3). 그리고 아브람 당시에 이미 하나님

라가 이국 땅에서 살며 감당했을 어려움과 수고는 이민자라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민 1세라면 말이다. 낯설고 물 설은 땅에서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조차 애쓴 이민 1세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자녀가 새 땅에서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봤을 때 데라는 이민 결정을 잘 내린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아들 아브람이 이국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창11:31) 한 그의 뜻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라가 그 공을 차지 하기에 스테반의 설교가 한 가지 지를 너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행7:4). 데라는 그 자신이 아브람을 데리고 이민을 왔다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람을 “이 땅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한다.

오늘 이민의 삶을 사는 이들

올라가고 있다. 특히 창세기 15:7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라 하신다. 여기서 “이끌어 낸”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는 표현이다. 즉, ‘옮기심’은 궁극적으로 ‘구속하심’의 테두리 안에 있는 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민자 자녀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아브람을 우르에서 “이끌어” 내어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또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섭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 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천, 즉 메시아 예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spark4@gordonconwell.edu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는 전략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23)

해마다 성령강림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필자는 교단과 강단을 오가며 평생을 교육에 몸담고 있어, 이 말씀을 자녀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은 나름대로 바라는 자녀 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등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는 자녀 상은 ‘성령의 기질’을 가진 자녀여야 합니다.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녀입니다. 성령의 기질이란 내 성품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의탁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자녀들 중 성령의 기질을 가진 이상적인 자녀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니엘을 이상적인 자녀의 상으로 생각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나 국가가 바뀌고, 왕이 네 차례나 바뀌었지만 모든 국가, 모든 왕에게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중요하게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성품으로 적국에서조차 존경을 받았습니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이었지요.

이번 호부터는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는 전략’을 다니엘의 인생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바로, ‘뜻을 정하는 자녀’(다니엘 1:8)로 키우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흠이 없는 아이들을 뽑아 왕궁에 실 만한 자로 데려왔는데, 그중 어린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왕의 음식과 쓸 것을 주어 기르며 까닭은, 그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의식으로 바꾸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조력자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천천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처음으로 한 일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다니엘 1:8)

제사음식으로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다니엘에게 권유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대신 채소를 구한 것이지요. 그는 지혜롭게 먼저 열을 동안 시험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채소를 먹은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은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윤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세상 끝날까지 자녀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도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돌봐 줄 사람이 곁에 없었지만,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의뢰함으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는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삽니다. 모든 인생을 부모가 함께할 수 없을 때, 이제 더 크신 분께 자녀를 의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함으로 부모보다 더 큰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키우는 전략 2편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이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영숙 박사의 <성품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6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gcusa@yahoo.com / www.la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DMU Youth: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714)481-2779 / facebook.com/fe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예배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게속에 흠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9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침례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s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창립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실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t-R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주일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6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1. (월-금) 오전 10:00~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 2. 교회 평신도 여성성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발음사역 4. 네트워킹 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새벽기도: 오전 6:30, 7:00</p> <p>Tel: (714)445-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창립)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o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6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유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주일 3부예배: 오전 6:30(토) 수요모임: “아침같이 일어나세”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600-2948, dock.kim@cbce.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김재이 목사 (버지니아제일침례교회)

아름다운 5월, 오직 감사의 삶을!!

5월의 스프링힐드에는 봄의 색깔이 완연합니다. 물오른 나무에는 연녹의 잎사귀들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이름 모르는 보랏빛, 노랑빛, 주홍빛 들꽃들도 봄 향연에 한 몫을 합니다. 쏟아지는 찬연한 햇살을 받

으며 봄바람에 춤을 추는 봄의 꽃들이 들녘에 가득히 일렁이는 오늘은 하늘의 구름을 잡을 듯 상상의 나라도 펼쳐보게 됩니다. 바람도, 구름도, 숲 사이를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도 꽃과

꽃을 나르는 나비와 벌들마저도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5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구불구불한 길도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굽이굽이 돌아가는 산길 끝에도 능선이 보이는 정상도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언젠가 팬데믹도 지나간 추억으로 남아지는 시간이 오겠지요. 삶의 평탄한 길을 갈 때에도 굴곡 없는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 혼자만이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잠시 뒤를 돌아보세

요. 우리는 참 많은 시련을 잘 이겨내어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저 마다 담아둔 많은 사연과 아픔들, 수 없는 눈물과 한숨을 그냥 그렇게 가슴에 묻어두고 얼굴에는 미소 띠며 그냥 그렇게 그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표현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해서 우리가 얼굴이 굳어진 채로 지낸다고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지금 누군가를 원망해서 상황이 달라진다면 미워하며 원망해야겠지요.

지금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싸워서 상황이 달라진다면 싸워야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시련이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마음이 많을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격정이

많을수록,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웃어 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창조 of the 아름다운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웃으며 차근 차근 하나씩 그 매어진 인생의 매듭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너무나도 영적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뿐이지 절대로 그 매듭을 못 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없이 영적 매듭 앞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언제 그 많은 매듭을 다 풀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앉은 채로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푼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문제와 당당히 마주 앉아서 하나씩 풀어 가면 언젠가는 신기하게도 그 매듭이 다 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정그리거나 그 앞에서 했던 고민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시

련'이라는 단어를 붙였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당장 정그리거나 가슴아파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힘차게 웃으며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머지않아 찬연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화사하게 웃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이 다가기 전에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속에서, 아름다운 꽃들과 춤추는 나뭇잎을 따라 함께 마음의 춤을 추며 외치며 나가요. "내게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잘할 수 있어요!!"라고. 모두 힘을 내어 살아가십시오.

(drjeykim@gmail.com)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희망나눔 콘서트

평화적이고 정의로운 합의로 전쟁이 종식되길...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희망나눔 콘서트가 '함께함시다'라는 주제로 14일(토) 오후 6시 감사한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CTS 아메리카 주최로 열렸다. 구봉주 목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사태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동유럽 여러 나라로 피난하는 난민들과 군인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나라간에 평화적이고 정의로운 합의를 통해서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콘서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반재근 목사(시미벨리안인교회 담임) 사회와 구봉주 목사가 인사말과 기도도 시작된다. 이날 콘서트는 가스미지, CTS여성합창단, CTS헌성합창단, CTS 스트링앙상블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과 유수연 ABC교육국장인 사말을 전했다. 이날 공연은 드

라마 이산과 동이의 OST 연주를 한 폴루티스트 송솔나무 선교사가 특별출연하여 간증과 연주를 했다. 현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송솔나무 선교사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면이 많다"라며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는 3일간만 NGO에 보고하기위해 머물려고 했는데 80일 넘게 머물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직접 물자를 전달하고 하루 1000마일 넘게 운전한다"며 "구호물자를 전달해주는 것 외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악기연주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

해 악기를 나눠주기도 한다"고 자신의 활동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자리가 귀한 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를 볼 때 미국교포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전 출연자들이 'You Raise Me Up'과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른 뒤 김영길 목사(감사한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상담과 영성형성 박사과정 디렉터 송경화 박사

"상담은 주님께서 모두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는 기독교상담과 영성형성 박사과정을 개설했다. WMU의 '기독교상담과 영성형성 박사과정'은 목회학 박사 학위과정의 세부전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박사과정 역시 DMin in Christian Counseling and Spiritual Formation이다. 오는 가을학기부터 시작하게 되는 본 과정을 대하여 송경화 박사(본교 상담학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저희학교 상담학과는 학부(BACC)와 석사과정(MACC)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이 시작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상담은 주님께서 모두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역이고 사명이라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박사과정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의 특징에 대해 송경화 박사는 신학, 영성 그리고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 실제 사역에서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 그리고 기독교 상담과 영성형성의 균형 있는 학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별히 지난 10년간 탄탄하게 꾸려온 석사과정을 바탕으로 박사과정이 개설된 만큼 WMU를 통해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는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저희학교 상담학과 커리큘럼이 상당히 좋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학교에 몸담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학교를 통해 타 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들에게서 나온 반응입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교수님 여기오니가 석사과정에서 교수님한테 배운 걸 다시 배우고 있어요'라는 것이예요. 이는 WMU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MU가 박사과정을 지금에서야 개설하게 된 이유는 석사과정의 내실을 좀 더 다져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송 박사는 박사과정 개설 이야기는 5년 전에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작년 그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기에 개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석사과정에 대한 내실과 함께 박사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석사가 충분하지 않았

었습니다. 이제는 상담훈련을 받은 석사소지자들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코비드19으로 인해 수업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져 것이 박사과정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박사과정은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함께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는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며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 강의는 WMU내에 있는 스마트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학부와 석사의 경우 강의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박사과정은 학생들이 준교수급이기에 토론위주로 강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병행해서 진행된다. 따라서 박사과정 학생들은 토론에 임할 수 있게 책을 읽고 연구하여 수업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실습도 하게 되는데 수업의 절반이 실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며 "저희학교의 장점은 학교에 기독교상담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1건 이상의 상담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 상담을 통해 수퍼 비전을 받고 상담 기술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이 마친 후 내담자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서 인격적 성숙도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상담수업 외에 영성형성에 대한 수업도 진행하게 된다. 영성형성은 Spiritual Practice를 수업시간에 하게 된다. 송경화 박사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 목사, 선교사, 사모들이 상담을 하고 있지만 상담을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사역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기독교상담 공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성경적인 상담을 내담자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송경화 교수

WMU 기독교상담과 영성형성 박사과정은 코스웍은 24학점(학점당 4학점) 실습 4학점 그리고 논문 6학점 등 총 3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정원은 12명이며 학점당 학비는 400달러이며 이번 가을 학기에 한해서 20%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송 박사는 상담 담당자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상담 교육을 받은 자들이 그들 주변만 도와줘도 한인사회가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사과정은 학위가 주는 전문성에 있다며 강단에 서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수자의 자격이 부여되고 글을 써서 학계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입학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사람을 가르쳐서 상담을 잘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했으면 합니다"

송경화 박사는 WMU 박사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자기만의 문제를 보고 자기만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더 성장했으면 한다고 하며 WMU에서 배움을 통해 각자가 있는 그곳을 책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입학문의: (213)388-1000, admissions@wmu.edu (박준호 기자)



미주 연세조찬기도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연세대 동문 조찬기도회 출범

회장 정요한 목사, 총무 김철 목사

미주연세조찬기도회가 출범했다. 지난 5월 9일(월) 오전 7시 LA 한인타운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연세대학교 교교 137주년 기념 미주연세조찬기

도회가 개최됐다. 미주에서 연대동문들로 구성된 조찬기도회가 조직된 것은 처음이다. 연세 아카데미 회장 지용덕 목사의 사회로 열린 조찬기도회는 서

울 이효종 연세조찬기도회 회장의 동영상 축사,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 이태섭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어 부회장 최계희 권사가 성경봉독을 하고 한기형 목사(미주CBS방송 대표)가 설교에 나섰다. 김영대 목사, 최계성 장로, 조후연 목사의 공동기도가 있는 후 회장에서 선출된 정요한 목사의 취임사, 총무 김철 목사의 광고, 박종대 목사(전 남가주교협 회장)의 축도순으로 진행되었다. 초대회장 정요한 목사는 취임사에서 "엔드우드 선교사를 통해 설립된 연세대학교의 숭고한 뜻을 함께 공유하고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미주 한인커뮤니티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정리: 박준호 기자)

선교한국 ...

(7면에서 계속)

그해 어린이 4명이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은 어린이가 113명이었으며, 등록한 세례 교인은 215명이었다. 교회학교 교사 6명이 평균 85명을 가르쳤는데 등록한 수는 그보다 많아 114명이었다.

1942년 1월에 민간방위청 시기 부 산하 10인 하와이 한인실업위원회가 조직될 때 안창호는 성공회 신부 조광원 등과 함께 회원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다. 1944년에 와하와 교회에는 세례교인이 235명이었고, 그해 세

례받은 사람은 8명이었으며, 3명이 이명되거나 사망하였으며, 주일학교 학생 51명 중 청소년이 43명이었다. 그해 10월에 부인 보조회가 태평양 전쟁에 출전한 군인을 위하여 예배당 안에 별기를 만들어 걸기로 하였는데 다음 달에 환경선의 장남 영교가 독일에 출전하여 입원 치료차 도미했으나 차도가 있어 안심했고, 이듬해 25일에 1년간 출전한 언디모데, 김제임스, 이태욱, 양영호, 함은의, 이종군이 건강하게 돌아와 큰 기쁨이었다. 한국이 해방된 이듬해 2월에 재미한국연합위원회 하와이 9인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안창호가 서울을 방문하고 6개월간

체류하면서 민족 사랑을 이었다. 1947년 3월에 안창호는 호놀룰루 교회 부목사로 파송 받았다가 1957년 2월에 은퇴했으나 1962년 6월에 연로한 가운데서도 임시 한어부 부목사가 되었다. 1966년 12월 30일에 호놀룰루에서 향년 81세로 소천하고 고향 남양주 선전 묘역에 안장되었다. 한국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을 기려서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2002년에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하였다.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 연구가 안형주는 안창호의 손자가 된다. damien,sohn@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뉴저지 목사회가 주최하는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가 5월 23일 월요일 뉴저지에서 개최된다.
▲ 문의: (201)805-5129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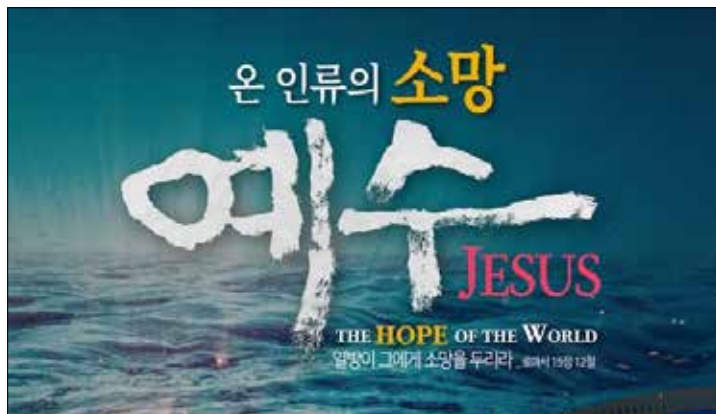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소(소장 박석현 목사)에서 6월 7일부터 9일에 걸쳐 한인교회 미래에 대한 포럼을 개최한다. 메릴랜드 Sandy Cove Ministries 에서 한인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지도자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비와 숙박은 무료로 제공 된다.
▲ 문의: 소장: 박석현 목사 (408) 712-9876, park1104@gmail.com

뉴욕선교대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뉴욕선교대회가 5월 26일 목요일 부터 29일 주일에 걸쳐 뉴욕장로교회(김학진 목사)에서 개최 된다. 선교 간증 집회 및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회장: 김희복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김학진 목사, 이준성 목사
주강사: 김용의 선교사, 강사: 김남수 목사, 고석희 목사
▲ 문의: 교협사무실 (718)279-1414, 총무 (631)327-8046

사역자청빙

뉴욕 리틀렉 위치한 은혜교회(KPCA, 담임목사 이상훈)에서 함께 동역할 초등부 및 Youth(중고등부)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M.Div. 이상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과정 중에 있는 자로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은 6월 5일이며 이메일(eunhaechurch2021@gmail.com)로 보내면 된다.
▲ 문의: 718-428-1447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3차 마감 5월31일

“예수, 온 인류의 소망” 7월 11-14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선교운동의 세대 계승 및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하며 선교전략분야를 집중하여 논의 예정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3차 마감일이 5월 31일로 다가왔다. “예수, 온 인류의 소망(Jesus, the Hope of the World)”(롬 15:12)이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1 일(월)부터 14일(목)까지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열리는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참석인원을 축소 한다. 한인세계선교대회는 1988년 시카고 워튼칼리지에서 열린 제 1차 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며 한국 기독교 선교의 장을 열어왔다.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열리지 못했으나 연차총회는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준비 끝에 올해 열리게 됐다. 예전 대회에는 선교사만 1천명 이상이 참석했으나 이번에는 약 300여명으로 제한했으며 전체 참석은 약 1,000여명으로 예상한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번 9차 대회의 특징은 선교운동의 세대계승에 중점을 두어서 그동안 선교지에서 중

심 무대에 서지 못했던 50대,40대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계승과 20-30대로 성장한 MK세대들이 함께 할 예정이며 주최 측은 20-30대가 전체 참가자의 약1/3으로 서로 간에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 중심 워크숍을 갖는 것 보다는 각 전문 분야별로 8개의 전문분야를 선정하여 현재 가장 다뤄져야 할 선교 전략 분야들에 집중하고, 중심 분야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논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선교운동의 세대계승이 이뤄지며 선교지와 함께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선교사 신청 자격은 △KWMA 가입된 단체 소속 선교사로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1팀 이상 선교사에게 가산점이 있다. 회비는 개인당 250달러(숙식 포함). kwmc.usa@gmail.com 신청사이트: https://forms.gle/TztorPotarjXA6xs5 ▲ 문의: 한국: 070-4610-1346/ 미국: 1-714-603-7192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장로교회와 뉴욕주는교회, 뉴욕선교사의집에 각 1만 불 전달

2007년부터 뉴욕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의 보금자리였던 뉴욕선교사의집은 장소 사용이 만료되어 지난해 12월 5일부터 사역을 임시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55여만 불이 모금이 된 상태이지만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플러싱을 중심으로 한인교회와 협력하여 건물 증축을 통해 다시 선교사의집 사역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뉴욕선교사의

집 대표 최문섭 장로가 출석하는 뉴욕장로교회도 5월 12일(목)에 선교사의 집을 위한 2주간에 걸친 전교인 지정헌금으로 걸린 1만 불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학진 담임목사와 선교위원장 광기덕 장로가 참가했다. 이밖에 뉴욕주는교회 김옥순 권사가 선교사의 집 구입에 동참하여 1만 불을 전달 했다.
(기사제공 아멘넷)



안수위원들이 목사안수를 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 43회 목사안수식

우정현 목사 안수 “우리는 주님위해 부름을 받은 자”

미주성결교회 43회 목사안수식이 5월 17일 화요일 오전에 뉴

욕주성결교회(황영송 목사)에서 열려 우정현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행사를 1년 연기했으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소수의 관계자들만 참가한 가운데 안수식이 진행됐다.
예배는 사회 황하균 목사(전 총회장), 기도 황영송 목사(동부지방회 뉴욕감찰장), 설교 이대우 목사(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대우 목사는 디모데후서 4:1-5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하였고, 안수식은 이대우 총회장의 인도로 총회장 예식사, 서약, 공포, 총회장 선물 증정 등이 진행됐다. 또 이대우 총회장과 전 총회장 3명(김석형 목사, 이의철 목사, 황하균) 등 4명이 안수위원이 되어 목사안수를 하고 성의작의를 도왔다. 파송기도를 통해 이의철 전 총회장은 “목회를 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게 하소서. 여러 유혹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정현 목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함축적 기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정기총회 개최

(1면에서 계속)

고목사는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찬”(눅22:14-23)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강기봉 목사(뉴욕서)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 서기가 회원을 호명하니 목사총대 173명 장로 7명으로 총 180명이 회의에 참여하므로 총회장이 회를 선언했으며 강인국 목사(제 46회 총회준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고 장성철목사(서기)의 절차보고와 고시부보고가 있는 뒤, 고시부장 송일용목사가 목사고시 합격자 9명을 발표했다. 이어 임원선거를 통해 총회장 홍기표목사, 부총회장 김성국목사를 선출했으며 신규임원교체가 있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총회장 홍기표목사는 “앞으로 1년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총대님들이 함께 총대를 위해 함께 일해 주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목사고시에 합격한 이들과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강솔로몬(필라) 고아람(필라) 김진형(뉴욕동) 김현민(워싱턴) 오솔길(뉴욕동) 신종호(워싱턴) 허장길(뉴욕) 조혁(필라) 마이클(필라) △총회장 홍기표 목사(중부),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뉴욕), 서기 안병권 목사(남가), 부서기 정성환 목사(동남), 회록서기 장의한 목사(뉴잉), 부회록서기 남일현 목사(뉴서), 회계 김영석 장로(북가), 부회계 서명환 장로(뉴남)

선교의 밤은 한세영 목사(선교회서기)의 사회로 시작되어 한인철 목사(선교회 이사) 기도와 헤브론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뒤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미국본부대표)가 단에 올랐다. 이재환 선교사는 “갑비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큰 용기를 준 것은 사도바울이셨다.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은 선교적 종말이다. 지금이 지나면 마지막 때이다. 선교는 기적이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잡아 선교사를 보내야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윤석 목사가 파송선교사를 소개 했으며 유재일 목사가 서약과 공포를 한 뒤 파송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다. 이날 정경태 선교사(파라과이)의 권면과 임흥섭 목사(총무대행)의 ‘미셔널 교회에서 미션마인드 교회로’라는 주제강의가 있는 뒤 김재열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셋째 날 새벽기도회는 김덕원 목사(카나다 노회장)의 사회로 오영상 목사(뉴욕서 노회장)기도, 임택 목사(서북미 노회장) 성경봉독, 김원광 목사(합신 총회장)설교, 김남수 목사(뉴동)축도로 마쳤다. 말씀을 전한 김원광 목사는 “시련의 때에 품어야 할 신앙 자세”(출 14:10-14)란 제목으로 “지금의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시대에 품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스기대감을 잃지 말고 스기도를 회복하고 스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스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둘째 날 수요일 새벽기도회는 신철웅 목사(뉴동노회장) 사회로 기도 문경두 목사(수도노회장), 이승로 목사(동남부노회장) 성경봉독, 김재열 목사(뉴욕남) 설교, 유재일 목사(가미)축도로 마쳤다. 김재열 목사는 “남유다가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잡혀 갔으나 하나님은 70년 후에 포로민을 돌려보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코비드가 가져온 우리 교회와 교계의 형편은 협동의 원리를 통해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일에 목사가 앞장서야 하며 한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해도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합하면 하나님은 민족과 세대, 다른 이들을 감동시켜 대역사를 이뤄 가신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장 개혁(총회장 박영길 목사), 예장 고신(총회장 강학근 목사), 예장 대신(총회장 이정현목사), 예장 합신(총회장 김원광 목사) 친선 사절단과 인사의 시간도 가졌다.

셋째 날 회무처리는 오후 7시 40분 사모들의 특별찬양으로 시작되었으며 회무를 마친 뒤이어 폐회예배를 드렸다. 폐회 예배는 이병은 목사(필라노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유진상 목사(하와이노회장)가 기도했으며 정정연 목사(중남미노회장) 성경봉독, 홍기표 목사(총회장)가 설교했다. 홍기표 목사는 “복음 증거의 핵심”(사도행전 28:30-31)이란 제목으로 “모든 제약을 넘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는 교회와 교단이 되기 바란다”라고 설교했으며 이영섭 목사(수도)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올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줄을 몰랐다. 총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준비위원들에게 거듭 감사한다. 모든 회의들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기쁘기 그지 없다”고 입을 모으며 2023년 5월 23일(화) 제47회 총회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교회로 향했다.
(이성자 기자)

한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이사장 유재일 목사)는 수요일 저녁 7시 헤브론교회(담임 김건우 목사)에서 선교의 밤을 열고 이준택 선교사(국), 조영훈 선교사(국제난민대상)의 파송식을 가졌다.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예배로 시작하고 있다.



목사고시 합격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크마주최 우크라이나의 평화 음악회가 세인트폴 성당에서 열렸다

라크마주최, 우크라이나의 평화 음악회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위로

라크마(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가 주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음악회가 15일(주일) 오후 7시30분 세인트폴 성당에서 열렸다. 최승호 단장과 라리사 레이첼 우크라이나 문화센터 관장의 인사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성 블라디미르 성당 바실레 소큐어 신부 기도로 시작했다. 음악회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위한 기도'란 주제로 LA 우크라이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인 맥심 쿠진의 지휘로 '우크라이나 멜로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두 작품을 연주했다. 이어 1953년 6.25 전쟁 끝날에 작곡가 나운영 선생이 전쟁의 폐해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평안히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곡을 썼던 한국 최초의 시편가 '여호와와 나

의 목사시니 (시23편)'를 윤임상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라크마 심포니의 연주로 김향란 가야금 연주자와 테너 오위영이 협연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인 '전쟁에서 희생된 자들을 위로하는 기도'로 레퀴엠 중 가장 대표적 모짜르트의 레퀴엠을 연주했다. 윤임상 라크마 음악감독의 지휘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크마 합창단과, 윌드미션대학교 챔버 콰이어가 합창을 하고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했다. 독창자로는 소프라노 이영주, 메조소프라노 에나 플라이어르, 테너 아놀드 리빙스턴, 베이스 벤 로이로 이 곳 LA Opera 등 다양한 곳에서 왕성하게 연주할들을 하고 있는 다민족 독창자들이 참여하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7회 사랑의마당축제

발달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어우러지는 사랑과 화합의 축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7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5월14일(토),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 에서 열렸다. 사랑의(마당)축제는 매년 5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로 발달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과 화합의 축제다. 이영선 목사는 "사랑의 축제가 22년 전 12월 처음 시작되었다. 2000년 12월 첫 번째 사랑의 축제는 5명이 모여 시작했는데 37번이나 할 수 계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사랑의 축제는 발달장애 친구들이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발달장애 친구들이 행복해지면 세상에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했다.

GBC미주복음방송과 해피빌리지,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Parks Recreation & Caravan Canopy, Hanmi Bank, 새생명비전교회의 특별후원으로 개최

된 이번 사랑의마당축제는 24개 교회와 25개 단체들이 협력하여 행사를 알차게 꾸며 주었다. 1부 순서로 일반인 온누리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이영선 미주복음방송 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박신웅 일반인 온누리교회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해주었고, 일반인 온누리교회 찬양팀의 특송이 있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 진행된 2부 순서에는 신나는 댄스파티와 진 최 무용단의 발레 공연과 사물놀이, 김마루 집사(새생명비전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재미난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의 푸짐한 상품 등으로 참석한 발달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봉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이날 행사장에는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 Vaccinate All 58 캠페인 및 정신건강 인식의 달 일환으로 백신 차량을 지원하여 특별 부스를 마련하고 5세 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Covid-19 백신 및 부스터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푸짐한 선물도 선사하였다.

〈박준호 기자〉



사랑의마당축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원하트미니스트리 예배 컨퍼런스 연다

예배에 필요한 요소를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원하트 미니스트리(이하 원하트, 대표 피터박 목사)가 오는 6월 둘째 주에 전 어노인팅 워십리더 전은주 전도사와 '지금의 하나 되어 예배할 때'라는 주제로, 미국 세 지역에서 예배 컨퍼런스를 연다. 예배 컨퍼런스는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배우는 자리로, 이번 원하트 컨퍼런스에는 보컬, 악기, 음향, 예배인도, 활용등 다양한 주제의 선택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원하트와 전은주 전도사는 6월 4일 LA 지역을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하와이를 방문해 다양한 선택강의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저녁집회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LA지역은 (6/4-6/5)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6/8) 오클랜드 우리교회에서, 하와이 지역은(6/10-6/11)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저녁 집회 후에는 지역 교회 예배인도자 및 찬양팀 모임이 준비되어, 지역적인 로컬지역의 예배인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컨퍼런스 참가비는 엘에이 지역은 \$100, 샌프란시스코는 \$50이며, 저녁집회는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또한, 8명 이상의 단체 접수 또



는 30명 이하의 작은 교회의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 아트, 영상 등 관련분야를 도우며 예배와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는 예배자들의 모임이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부에나팍 교회에서 화요찬양모임으로 모이고 있으며, '심플워십'을 통하여 시대의 참 예배로 나아가는 도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컨퍼런스와 집회 관련 문의 사항은 (213)347-5080 (김혜지 간사)으로, 지역 찬양인도자 및 찬양팀 네트워크 신청은 (949)246-4348 (송제인 팀장)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원하트미니스트리)

서부교계 게시판

제26차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총회장 신원구 목사)는 제26차 총회를 '내가 반석위에 내 교회(총회)를 세우리라(마 16:18)'라는 주제로 23일(월)과 24일(화) 양일간 오렌지힐스한인교회(2910 N. Santiago Blvd, Orange, CA 92867)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이정현 박사(개혁장로회 대학 및 대학원 총장)과 김선중 박사(KAPC 총회 상임교육연구 위원장)가 특별세미나를 인도한다.

▲ 문의: (714)646-9259

은혜한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창립 40주년 기념부흥회가 '꿈을 꾸고 이루어 땅 끝까지'라는 주제로 19일(목)부터 22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순환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 담임). 일정은 19일(목)부터 21일(토) 오후 7시30분, 22일(주일) 오전 7시30분, 9시20분, 11시30분이다. 또한 22일(주일)은 교회창립 감사예배로 드림 3부예배시 신임 임직식이 있다.

▲ 문의: (714)446-6200

크리스찬문인협회 신인작품 모집

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송종록 목사)는 제36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작품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작품은 시, 수필, 소설, 동화, 동시, 생활수기 등이다. 응모작에는 이름(한글, 영문 본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하며 크리스찬문인협회(1655 W. Marine Ave, Gardena, CA 90247)로 보내야 한다.

▲ 문의: (213)249-0771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특별한 수요기도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특별한 수요기도회를 25일부터 6월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에 갖는다. 일정은 5월25일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6월1일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6월8일 박신웅 목사(일반인온누리교회), 6월15일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가 강사로 나선다.

▲ 문의: (310)618-2222

KUMC 서부지역 평신도연합회 주관 세미나

가주태평양연회 한인 코커스 연합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평신도연합회 주관 세미나가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22일(주일) 오후 4시 워싱턴감리교회(담임 구진모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23)931-9133



교육철학박사 과정을 설명하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수들. 왼쪽부터 이병규 박사원장, 안송주 교수, 최규남 총장, 김현연 학장, 개신구 행정장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육철학박사과정 개설 세계 한인 선교사들의 학문개발 지원과 선교발전에 조력자 될 것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GMU)가 교육학 철학 박사과정(Ph.D)을 개설한다. 교육학으로 철학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미주 한인신학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GMU는 지난 4월25일 미국 기독교 학교 학위 인증기관 트랜스(TRACS,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로부터 교육학 철학박사(PhD in Educational Studies) 학위 개설인가를 받고 오는 2022년 가을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학 박사학위 개설로 선교지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국에서 공인하는 교육학 철학박사 학위를 통해 학교 설립과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전망했다. 지난 9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최규남 총장은 "이번을 계기로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의 학문적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 선교 발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ATS에 교육철학과 박사과정 개설 인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병규 박사원장은 "선교지 현지 지도자들도 성장했다. 동시에 선교사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교육학 철학박사 학위과정을 통해 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선교현장에 필요한 교육 디렉터 양산에 기여하고, 공산 국가나 무슬림권 선교지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철학과 담당 디렉터 안송주 박사는 "작년 8월경부터 교

육철학과 과정을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의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선교지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사역을 감당 할 수 있도록 GMU 교육철학과 박사과정을 준비해왔다"며 "선교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교육철학과 박사과정은 총 52학점(과목당 4학점)이며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해 선교지에서 필요한 학교프로그램을 세워나 가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선교사와 목회자들에게 학비의 30%를 장학금으로 돕게되고, 올가을학기 에 한해서 50%할인된 가격으로 학비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GMU는 기독교 대학 및 신학교 학위 인가 기관인 ATS를 비롯해 TRACS 와 성경고등교육 협회(ABHE) 정회원으로서 미연방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doctoral@gm.edu, (714)365-1123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 음악예배

은혜한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음악예배가 13일(금) 저녁 7시30분에 열렸다. 이미경 권사 조제이스 집사 진행으로 열린 감사예배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되어', '은혜이면' 등을 불렀다. 그리고 소프라노 김중숙, 테너 오위영 목사가 'The Prayer'를 불렀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메타버스와 다음세대 목회’ 세미나 개최

“오프라인과 다른 소통방식 개발 필요...속도조절도 필요”

서울 도림교회(정명철 목사)는 지난 3월 13일 메타버스 교회학교인 ‘도림타운’을 처음으로 개시했다. 이날 당시 접속자 28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 1일 까지 7주 동안 운영하면서 주일 평균 237명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여했다. 같은 기간 비대면예배 평균 출석의 45.6%다.

도림교회 교육부 최지웅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가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면서 “메타버스 사역이 현장예배의 대체제는 될 수 없지만, 대안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17일 서울 종로 한 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메타버스와 다음세대 목회’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메타버스 교회학교 ‘성공담’을 공유했다. 메타버스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처럼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림교회와 동안교회(김형준 목사) 등 주요 교회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와 활용 방안이 소개됐다. 또 메타버스 교회학교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등도 짚어보는 자리였다.

최 목사는 “메타버스 교회학

교를 통해 아이들은 난생 처음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만들고 꾸민 아바타(가상공간에서의 자기 캐릭터)를 직접 키보드로 한걸음 한 걸음 움직이며 예배실에 들어가야 한다. 예배 후 진행되는 성경 퀴즈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예배의 적극성을 교육해주는 훈련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의미를 부여했다.

“아바타 꾸미기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회학교 교사들까지 인터넷상에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꾸며 새로운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자체로 눈길을 끌었다. 처음 시도했을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그럼에도 최 목사는 아이들의 흥미를 위한 콘텐츠를 매주 다르게 준비했고, 차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아이들이 가상 공간에 익숙해지고 교사들이 메타버스 사용법에 익숙해진 덕분이다. 그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교회학교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목회

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 신형섭 장신대 교수는 “메타버스란 플랫폼을 통해 사역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면서 “장소·세대·문화적 변화로 복음 전파와 관련한 인간의 한계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교회 학교’ 저자인 김현철 목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까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4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종교계에서도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인데, 교회 내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 다양한 신앙 교육을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충분한 검증 단계와 속도조절 필요성도 제시됐다. 최 목사는 “오프라인에서 리더십이 온라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 방식에서는 오프라인과 또 다른 소통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아직 메타버스가 학문적으로 잘 정립되지 않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기업들과 교회들이 현재 너무 조급하게 달려드는 느낌도 있다. 메타버스에 무작정 뛰어들거나 모든 교회가 메타버스를 시도하는 건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메타버스가 무료가 아니기에, 여력이 있는 큰 교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며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명성교회가 병원을 세웠는데 오늘 착공한 아가페비전센터와 은과기초진료소를 통해 더욱 든든하게 서 가는 병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의 보건 환경은 매우 열악해 해마다 5세 미만 아동 수천만 명이 사망한다. 주요 사망 원인은 폐렴과 설사, 말라리아, 홍역 순이다. 명성교회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티오피아를 위해 2004년 MCM을 세웠다. 이 병원은 9만㎡(2만7225평) 부지에 건물 면적만 1만8179㎡(5500평)에 달한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 직원 등 600여명이 매일 외래환자 500여명과 입원환자 100여명을 돌보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MRI CT 혈관 조영 촬영기 등을 갖춘 MCM은 에티오피아의 모범병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대사관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이 병원을 찾는다. 의료진 양성을 위해 2012년 설립한 MMCO 교육의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중소형교회 은퇴 목회자들이 힘들다

사회적 관계망도 빈약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가중 “솔직히 사역할 때보다 사역한 후 은퇴 4년 차인 지금이 더 힘들다.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더 그렇다. 한창 전원에서 사역할 때는 사명감이라고 갖고 버텼지만,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는 사명감도 퇴색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침체에 빠져들었다.”(수도권 소재 A교회 은퇴 목회자)

다. 기금이 조성되면 연회 소속 미자립교회 178곳 목회자는 내년부터 4년간 매달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원은 나머지 교회들이 매년 경 상비의 1.7%를 각출해 마련한다. 서울남연회는 지난달 22일 광림교회에서 열린 제33회 연회에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달 10일쯤 실행위원회를 열고 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평연, 차금법 제정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면 반대하게 돼”

대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국회에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는 차금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계·시민단체 연합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금법 제정에 41.4%가 반대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이는 35.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3%였다. 특히 차금

법 내용을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보는 이들 중엔 법 제정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최대 10%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차금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 중엔 69.9%가 법 제정을 반대했고 법 제정을 찬성한 이는 24.1%에 불과했다. 진평연은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67.2%, 미동의가 28%였다는 점과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며 “차금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남성의 여성 전용 공간 출입이 가능해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점 등 차금법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의견을 묻자 차금법 제정 반대 의견이 41.4%에서 63.6%로 22.2% 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0%로 12.3% 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의 여성 전용공간 출입에 85.1%가 반대했으며,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도 반대 의견이 90.3%에 달했다. 전과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9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진평연은 “인권위가 ‘수박 겉핥기’식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금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며 “법에 담긴 실제 내용은 감추면서 ‘차별금지법’이란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워 호도할 것이 아니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기하성 제71차 정기총회...교단 헌법 개정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교단의 주요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기준을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로 강화했다. 사회 법정이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또 교회 내 분규 발생 과정에서 생기는 제명과 출교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교단 헌법을 손질했다.

기하성은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대성전에서 제71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에는 이영훈(대표총회장) 정동순 이태근(총회장) 박광수(기하성 재단법인이사장) 목사를 비롯해 총회 대의원 699명 중 624명이 참석했다.

기하성은 재판위원회 명칭을 징계위원회로 바꿨다. 동시에

교단 소속 교역자나 교인 등이 교단의 자체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 사회 사법기관에 소송(고소·고발 등)할 경우, 당회나 해당 지방회의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관장토록 했다. 재판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해 최대 제명·출교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총회의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이 목사는 “교회 내 분규가 발생해 일반 사회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위원회’란 명칭으로 인해 당회 재판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너무 과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며 “자문 변호사와 검토한 후 명칭을 징계위원회로 바꿨다. 아울러 제명과 출교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헌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성서공회, 우크라이에 요한복음 성경 17만6800부 추가 기증

대한성서공회는 침략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현지어 요한복음 성경 17만6800부를 추가로 기증하는 예식을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 대한성서공회 성서사업센터에서 개최했다.

이상화 서울 서현교회 목사가 참석해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란 걸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내는 줄로 믿는다”고 말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총회장 김은경 목사) 역시 지난 달 29일 용인 성서사업센터를 찾아 우크라이나어 성경 3540부와 요한복음 2만1052부를 기증하기도 했다. 기장 총회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면서 “성경이 그들의 손에 전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지난달 25일 1차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6800부를 보낸 데 이어 2차로 5월 중순쯤 17만6800부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요한복음은 모두 합쳐 35만3600부를 보냈고 신구약 전체가 담긴 우크라이나어 성경은 2만8000부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목회자들의 평소 생활과 업무 특성상 폐쇄성, 위계적 관계특성 등은 은퇴 후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빈약하게 만들어 고독과 행복감 저하, 사회적 결여를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한 은퇴 목회자는 이 같은 문제를 주변 중소형 교회 은퇴 목회자 10명 중 8명이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은퇴 목회자들이 건강 한 자야를 갖도록 하고, 공적도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혜경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전의 것들을 어느 정도 버리고 변화된 지위와 상황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수준에 따라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서 “국민연금 중 임의가입제도 자격 여부를 확인해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고용보장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외 의료 선교 다시 뿔다

명성교회, 에티오피아 돕는다

서울 명성교회(김하나 목사)는 최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명성기독교병원(MCM) 내 굿뉴스교회에서 MCM과 명성의과대학(MMC)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를 비롯해 강석희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와 데레제 두구마 에티오피아 보건부 차관, 메쿠리아 하일레 중앙인사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에티오피아 정교회 대표와 한국전 참전 용사 7명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에서는 아가페비전센터와 은과기초진료소 착공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상 8층에 160개 병상을 갖춘 아가페비전센터는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해 심장, 종양, 신경 분야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과기초진료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진료를 한다. 의대 학생들을 위한 로뎀기숙사 증축과 최신 MRI 장비 도입도 선포했다.

김 원로목사는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피로 맺어진 좋은 친구이자 형제와 같은 나라로, 6·25전쟁 때 참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한 용기있는 나라”라

함께 진행됐다.

“교육감 교원 임용 개입은 위헌적 월권...”

미래목회포럼 세미나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조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교원임용 관련 비리 척결을 사학법 개정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도 교육감이 직접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에 개입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종교계 학교 현황’(2018)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중 종교계 사립학교는 전체의 11.4%다. 종교계 사립고 10곳 중 8곳(79.3%)이 기독교 사립학교다. 박 교수는 개정 사학법 내용 중 제53조의 2(교원의 임용)의 문제점을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부분, 이를 ‘사·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나눠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교과목의 특수성에 따라 필기시험이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임용 방식을 친편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

회와 기독교 사학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박 교수가 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 10일 ‘2022 교육감 선거-한국교회 유권자 운동 출범식’을 열고 적극적 활동을 선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합승수 숭실대 교수는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는 법과 제도적 정비, 기독교 학교 내부의 역량 마련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법고단 차원에서 기독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를 댈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웨슬리 선교기금’ 조성 놓고 머리 맞댄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 남연회가 연회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 전원에게 생활비를 지원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2일 기감에 따르면 서울남연회는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웨슬리 선교기금’ 조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연다. 웨슬리 선교기금은 서울남연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일종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기금이

선교의 창 (19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사역과 지도력(指導力)

일반적으로 “가정은 가장 이상이 될 수 없고 교회는 목사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를테면 어느 선교 현장이든 그곳은 전임 선교사의 역량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선교사는 리더이다. 리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지도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십이 없는 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역도 속된 말로 말아먹기 쉽다. 뱀의 꼬리가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교현장을 보면 사역적 성과에 비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대부분 파생하는 문제들은 그 선교사의 지도력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

1. 지도력에 대한 이해

위키백과사전에서 의하면 지도력(leadership)은 “공동의 일을 달성하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얻는 사회상 영향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지도력이란 영향력이다(Leadership is influence)”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독교

교적 지도력은 어떠한가? 폴러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크리스천 지도력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God-given capacity) 한 지도자가 특정 그룹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게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공동체원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지체들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 및 발전을 돕고 공동체의 목표 달성에 모두가

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5) 주님은 멘토의 리더십이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시범케 하셨으며 잘못될 때는 꾸중하셨다(마 14:22-36). 6) 주님은 원칙의 리더십이었다. 예수는 진리를 위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악의 무리를 향해서는 날을 세우고 단호하게 물리치셨다(마 21:12-17). 7) 주님은 희생의 리더십이었다(요 12:24-26). 8) 주님은 사랑의 리더십이었다(요 3:16). 9) 주님은 책임의 리더십이었다(요 10:11). 10) 주님은 위임하는 리더십이었다(마 28:18-20). 위임하지 않으면 결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4. 바람직한 지도력 구조

오리 브래프만(Ori Brafman)과 로드 벡스트롬(Rod A. Beckstrom)은 “불가사리와 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체계가 느슨할 뿐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추종자이며 동시에 지도자가 되는 조직적 특성을 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불가사리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졌다. 그 교회들은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가정 단위에 기초했으며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생산을 이루어 냈다.

5. 선교사의 지도력

선교사에게서 지도력은 어떠한가? 첫째, 하나님 KING에 초점을 맞추는 지도력이어야 한다. 선교사는 시대에 편승한 문화적 상품과 브랜드로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기 쉽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으로 늘 심령을 가난하게 하며 사역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일꾼을

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교부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는 성령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에 지나지 않고, 복음은 죽은 편지이며, 교회는 단순히 조직에 불과하고, 권위는 힘을 사용하는 수단이며, 선교는 선전 기계이고, 예배는 구시대적인 유품인 동시에 도덕은 종들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맺음 말

그간 우리 교회와 선교현장은 성직자 중심의 사역 구조를 유지해 왔다. 지나간 역사 동안 크리스텐덤(Christendom) 시대를 구현하면서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중심에 성직자가 있어 왔다. 전통적인 이 사역 구조와 패러다임은 오늘날도 여전히 변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역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바 불가사리 구조가 아니라 거미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군대식의 계급 구조가 아니다. 1인 중심의 제왕적 체제는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대단히 위험하다. 이제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요구와 개성도 강해지고 있다. 선교사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지체들이 선교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급진적이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회복을 위해 자신과 공동체가 비전을 따라 고유의 사역을 창안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는 지체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이 정신이 선교사의 지도력 근간이 되어야 한다.

jrson007@hanmail.net

(지난 1872호 '선교의 창' 제목을 '누룩처럼 확장되고 있는 이슬람'에서 'KWFM 2022 LA Summit Conference'로 조정합니다.)

지도력이란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다.

선교 지도력은 명령이 아니라 섬김에서 시작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는 동역자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한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향력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3. 예수님의 지도력

예수 그리스도는 지도력의 모본이시다. 주님의 리더십 중 10가지를 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1) 주님은 목적이 분명한 리더십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요 6:38) 행하는 것이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방향하게 된다. 2) 주님은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그분은 결코 군림하지 않았다.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를 강조한다(막 10:45). 3) 주님은 일꾼을 키우는 리더십이었다(마 4:35-41). 4) 주님은 모범을 보이신 리더십이었다(눅 22:39-41). 사람들

미”라는 책을 통해 지도력 구조에 대한 재미있는 이론을 말했다. 저들은 성공적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불가사리와 거미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거미는 머리가 밝히거나 잘리는 순간 그 생명은 끝이 난다. 즉, 강력한 카리스마형 리더를 가진 조직일수록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결국 그 리더에 따라 조직의 운명은 결정된다. 그러나 불가사리의 경우는 이와는 대조적 모습을 가진다. 머리가 없는 불가사리는 다리가 잘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잘린 다리가 분화하고 성장하여 새로운 개체의 불가사리 조직은 분권화된 조직

세우는 사람 중심의 지도력이어야 한다. 지체들이 들러리가 된 프로젝트 형 사역은 공허할 뿐이다. 선교사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위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서번트 지도력이어야 한다. 칼이나 지휘봉이 아닌 수건을 드는 종의 리더십이다. 사람들은 들음 보다 보는 것으로 더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들려주는 복음과 함께 예수님처럼 Role Model로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력이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선교사는 권위와 힘을 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28) 바울을 로마로 보낸 베스도총독

바울을 2년간 구금하고 있었던 벨릭스는 계속된 유대인의 폭동과 소란으로 해임되었습니다. 특히 가이사라에서 발생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벨릭스를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해고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벨릭스(Felix)를 해고하고 그 후임으로 포르키우스 페스투스(Porcius Festus, 성경명 베스도)를 유대 지역 총독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신약 배경사를 가르쳤던 마이클 목사(박사)는 유대 지역 총독은 로마 정부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말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황제 네로는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가 추천하는 베스도를 유대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세네카와 뜻을 같이했던 부로(Burrus) 총독도 베스도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베스도를 추천한 이유는 베스도의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태도를 높이 샀다고 역사 자료는 전합니다.

갑자기 면직된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된 베스도는 벨릭스가 씨름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역 총독이 되기 전에 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의 치적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베스도는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칠 무렵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네로는 다른 총독을 보

냈는데 그가 루시우스 알비누스(Lucceius Albinus)입니다. 네로의 명령에 따라 총독으로 부임한 알비누스 총독도 전임자들과 유사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임자인 베스도에 관해서는 침묵하지만 벨릭스 총독의 악행과 부정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통상 바로 후임자가 전임자의 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비누스 총독이

베스도를 비난하지 않고 벨릭스를 비난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정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 국민들도 로마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

다. 네로는 이런 유대 지방을 잠잠하게 다스려줄 온건한 총독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베스도가 추천되어 유대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네로 황제와 추천자들의 기대대로 비교적 조용하게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베스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베스도에 관한 자료는 성경과 요세푸스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만 그의 이름(Porcus Festus)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삼두 정치 시절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포르키우스 가문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이름 베스도(Festus)는 축제(Festival) 혹은 기쁨(Joy)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스도의 인품과 업무 스타

공평에 성전 안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식당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유대인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이뤄지는 거룩한 일들을 왕과 왕의 손님이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시야를 가리기 위한 벽 건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은 왕궁의 조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안토니아 부대(Fort Antonia)의 망루의 시야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담에 대해 베스도 총독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그 담을 허물 것을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이 베스도의 명령에 반발합니다. 이에 베스도는 유대인들

에게 로마 네로 황제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소하게 합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고 유대인들이 로마 황실에 제소하게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평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네로는 유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당시 네로의 아내가 둘째 부인 포피아 사비나(Poppea Sabina)였습니다. 포피아는 나름대로 독실한 유대

교 신자였습니다. 그녀가 유대교와 성전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을 도왔다고 요세푸스는 전합니다. 베스도는 당시 네로가 친 유대교적 성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 벽 사건을 네로에게 직접 제소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스도 총독이 평화 지향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이 의견에 가이사라를 방문했던 유대의 왕 아그립바 2세와 그의 아내이자 여동생인 베니게(Bernice)도 동의합니다. 아그립바 왕은 베스도에게 “만약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다(행 26:32)”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요청대로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로 보냅니다.

베스도의 전임자 벨릭스(Felix)의 아내는 아그립바 2세의 동생 드루실라였습니다. 드루실라가 유대 사회의 상황을 잘 알았고 바울과 산헤드린의 갈등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도 바울의 무죄를 알았지만 뇌물을 받고 싶은 욕심과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야심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했습니다. 반면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알고, 바울의 요청대로 로마로 보냅니다. 베스도 까닭에 바울의 로마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사망에서 만나는 부활 생명 (민17:4) 380장

‘고라당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 열두 개의 지팡이를 준비하고, 그 지팡이에 각자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 케 앞에 두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썩이 날 것이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아론의 지팡이에 썩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열매가 열렸습

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죽은 나무에 생명의 썩이 튀워집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지팡이와 같은 죽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 하셨 듯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의 썩이 나게 하시듯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삶에 나타내신 생명의 하나님을 함께 세상에 증거 합시다.

화 먹이시는 하나님 (민18:21~24) 595장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제물들 중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레위인 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성직을 맡기시며,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보람을 받은 레위인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보내심을 받은 직장, 학교 등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입니다.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 무리바의 반석이 주는 생수 (민20:10~11) 259장

신 광야에 이르러 미리야이 죽고,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였고, 모세는 백성들을 반석 앞에 세우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물이 그 반석에서 솟구쳤고, 모두 그 물을 마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기에 ‘무리바의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솟은 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획보다 크시고, 사람의 방법보다 탁월하

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하여 ‘생수를 뿜내어 백성들을 먹이신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시라” 광야와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음료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목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그림 (민20:14~21) 191장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모세의 지휘 아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모세는 ‘왕의 대로(the King’s Highway)’만 따라서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다고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중에도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 거절 받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절’을 통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에돔이 아니라, 에돔보다 더 큰 ‘아모리’를 주시기 위한(민 21:21~35)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낙심되는 상황을 통하여 더 큰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금 늘 해야 할 우리의 고백 (민20:22~29) 288장

아론의 죽음이 임박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호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고, 아론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무리바 반석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물이 솟게 했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완벽하시기에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는 고백을 원하시기에 이제 대제사장에 위임되는 ‘엘르아살’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우리가 늘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다’입니다.

토 원망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민21:4~9) 144장

아론의 죽음 후,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던 중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심지어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합니다. 하나님은 불뱀으로 범죄 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놓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그것을 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모세

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이 원망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은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광야를 걸어갑시다.

교회음악 이야기(12)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신앙인 멘델스존

천재 음악가 멘델스존(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은 19세기 독일의 초기 낭만주의(Romanticism) 음악을 주도하면서 요한 세베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를 오늘날 있게 만든 장본인으로, 지금까지 유럽에서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라이프치히 음악원(University of Music and Theatre "Felix Mendelssohn Bartholdy" Leipzig)을 설립한 교육가로,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명성 높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eipzig Gewandhaus Orchestra)의 지휘자로 활동하며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한편, 신앙인으로서의 멘델스존을 조명해 보면 그가 가진 교회음악철학이 오늘날을 사는 교회음악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학으로(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Felix Mendelssohn Bartholdy" Leipzig) 개명을 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하는 학교로서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음악인들은 뉴욕 필하모닉을 크게 성장 시키고, 음악을 통해 독일 통일에 큰 공헌을 하고 얼마전에 작고한 유명한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Kurt Masur 1927-2015), 독일의 대표적 합창 지휘자, 작곡가인 게오르그 크리스토프 빌러(Georg Christoph Biller 1955-) 19세기- 20세기 초 체코 음악의 자존심이라 일컫는 레오스 야나체크(Leoš Janáček 1854-1928) 등 수많은 유명음악인들이 있다. 이처럼 음악교육가로서도 멘델스존은 역사적으로 크게 평

오늘날의 지휘자 역할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지휘자 어느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깊은 신앙을 소유한 개신교 음악가

먼저 그는 서양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를 재 조명하여 오늘날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게 한 역할을 하였다. 바흐는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마지막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 음악 감독으로 생을 살았고 슬하에 20명의 자녀를 두다 보니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의 작품 활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급급하게 지내게 되었고, 또한 당시 유명한 작곡가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이나 북스테후데(Dietrich Buxtehude 1637-1707) 같은 음악가들의 빛에 가려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한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어느 날 멘델스존은 바흐의 마태 수난곡(St. Matthew Passion BWV244)을 발견, 그 곡을 해석하면서 뛰어난 가치를 깨닫고 연주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바흐의 다른 음악들을 소개하면서 그를 서양음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음악가로 평가받게 한 것이다.

가 되고 있다. 멘델스존은 짧은 생을 살면서 당시 독일을 대표하는 라이프치히의 명성 높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eipzig Gewandhaus Orchestra)의 뛰어난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이 오케스트라는 1781년 창단되어 지금까지도 독일의 정통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표본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유명세를 이어 오고 있다. 그동안 카를 라이네케(Carl Heinrich Carsten Reinecke 1824-1920), 아르투르 니키쉬(Arthur Nikkisch 1855-1922), 빌헬름 푸르트벵글러(Wilhelm Furtwangler 1886-1954) 브루노 발터(Bruno Walter Schlesinger 1876-1962)등 독일의 가장 대표적 지휘자들이 이곳을 거쳐 갔고 현재는 리카르도 샤이(Riccardo Chailly 1953-)가 지휘를 맡고 있다. 멘델스존이 그의 나이 20세에 이 유명한 그룹의 지휘자가 되었는데 이때 이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가며 바로 바흐의 마태 수난곡,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등을 연주하면서 역사를 뒤로 한 음악의 선배들을 재 조명하여 음악 역사를 재 창조하였고, 자신의 창작곡을 사회에 선보이는 역할을 하며 오늘날의 지휘자 역할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지휘자였다.

한편 그가 세운 라이프치히 콘서바토리(Leipzig Conservatory)는 오늘날까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학교로 성장시킨 위대한 음악교육가였다. 지난 1992년에는 독일 최고의 연극학교인 한스 오토 연극학교(Theaterhochschule Leipzig)를 흡수해 라이프치히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티 예술대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펴기

파푸아뉴기니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봄이 오기가 싶었는데 성큼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숨겨진 각양각색의 꽃들과 연초록의 싱그러움이 주님의 창조를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짐걸다리를 놓고 계단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시절에 피을 쫓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아름답게 단장을 한 모습을 보면서, 긴 시간 동안 선교사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도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황량한 곳, 건널 수 없는 곳에 말씀과 복음으로 다리를 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꽃을 피우는 삶이 되도록 더욱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였습니다.

매월, 세 부족의 주 변역자들이 수도로 나오는 PMV(대중교통) 자동차를 만나기 위해 때로는 하루를 꼬박 걸고 가고, 때로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수도로 나와 함께 저희들



리하였습니다. 나라부족은 이제 신약성경의 책들은 거의 마쳐져서 지금은 마지막 책인 히브리서를 수정 작업하면서 컨설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는 계속해서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컴퓨터 스크린에 모여 사진을 찍으면서 다음 5월 18일의 모임을 기대하며 헤어졌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은 지난달부터 가바디 부족의 마오니가 모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 마을에 있는 고무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주님께서 이 형제의 형편과 마음을 간섭하시길 기도합니다.

한국 본부(GBT)를 섬기는 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월, 133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영적으로 충전을 하기도 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해외사역팀이 만나서 한 주간의 사역을 나누고 함께 논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때로는 전화, 이멜을 통해서 베테랑 팀들을 돕는 일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한국은 대면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에 몇 개월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비대면의 사역이 될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지난 4월 초, 결국, 이덕신 선교사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고, 며칠 후 김남수 선교사도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피곤함이 쉽게 밀려오고 후유증인 기침과 가래가 있어 불편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덕신 선교사는 코로나 전에 대상포진이 와서 동시에 두 가지로 씨름을 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3차까지 백신을 했고,

대상포진도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주, 김남수 선교사는 감사하게도 5년짜리 PNG 비자를 받았습니다. PNG 나 저희가 경유해서 들어가야 하는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한 여행 규제가 좀 풀려서, 저희가 6월말이나 7월 초에는 PNG로 들어가서 약 3개월 가량 사역을 할 예정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살전 5:16-18 -

올해, 저희 부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의 뜻을 이루어 드릴길 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파푸아뉴기니 종족들을 향한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행전에 신실하게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인내와 사랑의 기도, 또 귀한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오늘도 떨리는 가슴과 함께 저희의 소망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름이 될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성령께서 기쁨 부으시는 축복이 되는 삶이 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namsoo_kim@sil.org / duckshin_lee@gbt.or.kr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



과 교체하며 번역한 내용들을 주고 받고 있는데, 이들이 대견하고, 이 귀한 동역자들을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월, 2월, 3월, 그리고 지난 4월 20일에도 세 부족에서 5명(이꾸부, 우꼬, 아우아, 알리, 모레아)의 형제들이 수도(포트 모르스비)의 선교센터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함께 웃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와이마 부족 팀은, 사무엘상 2장부터 17장까지, 가바디족 팀은 마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 8장-22장의 수정 작업, 나라 부족은 요한 1,2,3서의 수정 작업, 컨설팅을 하면서 제안을 받은 부분의 로마서, 고전, 고후, 갈라디야, 골로새서를 다시 수정하여 마무

뉴저지목사회, 홀사모들을 위한 섬김잔치

“주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섬김잔치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12회기 뉴저지목사회 표어는 “주님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모님을 위하여!”도 외쳤다. 뉴저지목사회(회장 윤명호 목사)는 홀사모들을 위한 섬김잔치를 5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뉴저지동산교회에서 열었다. 모임을 통해 이용걸 목사를 감사로 한 예배와 함께 만찬, 그리고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1부 예배는 인도 홍인석 목사(부회장), 경배와 찬양 이준규 목사(뉴저지수정교회), 대표기도 김종국 목사(목회분과), 환영 및 광고 윤명호 목사(회장), 특별찬양 사모합창단, 말씀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훈련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국 목사는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

를 위해 한평생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남편 목사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고 눈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모님들을 위로하기위해 목사회에 전국잔치를 베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다.

참석한 모든 사모들을 위해 디모데목회훈련원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며, 특별히 홀사모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6월 22-23일에는 사모들을 위한 나이가리아 폭포 관광이 진행되며, 홀사모는 무료로 다른 사모들은 절반이 할인된 가격을 제공한다. 또 이날 헌금 전액을 사모합창단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교회음악 이야기

(14면에서 계속)

멘델스존은 여느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깊은 신앙을 소유한 개신교 음악가였다. 원래 유대인인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루터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게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멘델스존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을 가지고, 원문을 충실히 해석하여 그것을 음악에 접목시키려 노력했던 것 같다. 그것은 그가 쓴 두 개의 오라토리오 가사를 만드는 과정을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처음 쓴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St. Paul Op.36)은 바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그의 절친한 친구 개신교 목사인 줄리어스 슈블링(Julius Schubring 1806-188)과 사도 행전의 내용을 구약과 연관시켜 연구하여 원문을 충실히 하여 가사로 접목시켜 음악에 대입시켰다. 한편 그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오라토리오 엘리야(Elijah Op.70)를 극음악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 극적인 대본을 가장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나 있는 칼 클링게만(Karl Klingemann 1798-1861)에게 부탁을 했다. 그가 각 장면들의 극적인 요소는 잘 나타냈지만 성경의 원본을 의역화 하여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는 바

로 그와 손을 떼고, 다시 슈블링 목사아 손을 잡고 그 곡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는 말씀을 말씀대로 올바르게 해석해서 음악에 붙이려 부단히 노력했던 음악가였고, 단순한 예술 행위와 연주를 위해 작품을 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다.

멘델스존은 음악가로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던 뛰어난 예술인이었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그가 품었던 교회음악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을 사는 교회 음악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또 무대 예술을 위해 음악을 했던 당시 유명한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찬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주목하였고, 성경을 성경대로 음악에 접목시키려 했던 진정성 있는 교회음악인이었다.

오늘날 교회음악은 점점 더 미를 추구하는 탐미주의적(Aestheticism) 사상에 심취되어가고 있다. 말씀과 전통의 본질이 왜곡된 채 현대 사회만을 대변하는 실용주의적(Pragmatism) 교회음악으로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 신앙인 멘델스존이 외치고 있는 교회음악 철학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싶다.

lyoon@wmu.edu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에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E-mail: gl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시카고 다민족교회, 중부노회) 홍귀표목사**

동역의 기쁨 절실히 느낀 감동의 총회...

“모든 민족을 향해 문을 여는 교단 되기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6회 총회가 5월10일부터 13일까지 시카고 힐튼호텔에서 3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됐다. 이번 총회를 통해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홍귀표 목사를 만나 총회를 마친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 제 46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 동안 총회를 섬기고자 합니다.”라고 입을 여는 홍귀표 총회장. 그는 총회를 준비하며

팬데믹으로 확실치 않은데 대면으로 준비했다가 만약 참석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는가? 하며 염려 가운데 반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원래 칸쿤으로 예정했던 것을 취소하고 지난 1월에 시카고 힐튼호텔로 장소를 옮기며 준비했지요. 처음에 등록이 저조해 초조했는데 뉴욕의 한 노회가 전원 참석

▲ 앞으로 총회의 비전

우리 총회가 45년 전에 세워져 많은 발전을 해 왔으나 지금은 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는 ‘1.5세를 훈련하여 2세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슬로건을 내거는데 슬로건처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그것보다는 ‘모든 족속에게 문을 열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는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젊은 전도사들이 있고, 미국 직장에서 일하는 1세대도 많습니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음식점을 열고 한국 사람만 모라고 하냐? 어떤 사람이든 와서 흥황을 이뤄 주기 바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 모든 교단들이 모든 족속에게

▲ 사모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한 이유

사실 팬데믹 가운데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책정한 등록비는 5년 전 수준입니다. 지출되는 경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과 성도들이 힘을 다해 후원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모 관광을 준비한 것은, 사실 목사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으나 사모는 옆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너무 많아 알게 모르게 우울증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노회에도 4명의 사모가 투병 중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모들을 섬기자’라는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모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섬겼는데 우리들의 진심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



총회장 홍귀표 목사

에 걸린 외국 학생들 현황표를 보니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으로 350명이고 그 다음은 인도 학생이 300명, 한국학생 250명을 비롯해, 영국 학생 5명까지 모두 100여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가 땅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을 근원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했지요. 영어로 말하기도 어려운데 설교를 작성하려니 토씨까지 빠짐없이 만들어 보고 읽는 설교였어요. 그러나 원고를 보고 읽다가 줄을 놓치기가 일수였고 학생들은 즐기고 있고... 그런데 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가서 리더가 되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들을 3년 동안 후원하며 사역을 돕다 보니 지금은 페루, 베네주엘라, 쿠바 등을 비롯해 7개 나라에서 그들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며 고치셨잖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양을 치라”는 말씀을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양을 친다.’고 생각했지요. 선교에 대한 전략은 바울의 선교전략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례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문화에 맞는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단과 교회가 함께 하여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부노회 소속 시카고 다민족교회는 6050 W. Touhy Ave. Chicago, IL 소재해 있다. 교회와 다민족 선교에 대한 문의는 전화 773-775-3287, 이메일 esfcross@yahoo.com, 홈페이지 www.esfworld.us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신임 총회장 홍귀표 목사가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느헤미야 같은 역사를 체험했다.

짧은 시간에 일을 분담하고 빈틈없이 세워지는 계획을 보며 동역의 기쁨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체험했다.

누렸던 기쁨과 감동을 들려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를 준비하며 동역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부노회가 주최가 되어 준비를 했으나 총회 산하 모든 노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총회를 준비하며 마치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100개중에 90개는 들어 올렸지만 10개를 들을 힘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10개를 들어주어 온전케 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꼈지요.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 총회를 줌으로 하다 3년 만에 대면 모임을 준비하다 보니 “이번에도 줌으로 하자

등록을 시작으로 짧은 시간에 역대 최대의 인원이 참석하는 성총회가 됐습니다. 공항 라이드도 다른 노회 분들이 오셔서 지원하여 도와주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을 분담하고 세세히 계획을 세우며 빈틈없이 준비되는 것을 보며 동역의 기쁨을 절실히 느끼고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준비위원들과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타 노회 분들과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열고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20년 후에 몇 명이 남을까요? 하나님 부족함 나에게 총회를 맡기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은 일을 한다는 임장보다는 이런 무브먼트라도 일으키고 도전이라도 던지고 싶은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서 선교를 위해 앞장서는 미주크리스천신문도 다민족을 향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민족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한발 내딛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할 뿐입니다.

▲ 섬기고 있는 다민족교회 소개

내가 30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를 문법으로만 배웠기에 영어가 너무 어려웠지요. 이곳에서 신학을 다시 하고 마지막까지 이곳 주립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이민 1.5세대였지요. 한국말도 문제가 없었고 정서적으로도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민족이 모이는 학교 조찬모임에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백

기하게 백인, 베트남인 등 다른 나라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학생이 찾아와 “제발 설교를 영어로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안하면 저 사람들을 가리는 건가?”라고 반문했죠. 그런 상황이 되니, 한국 학생들은 하나, 둘 떠나고 외국 유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교회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다민족 교회가 탄생되었고 현재는 23개국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한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재이민을 가듯이 이들도 자기들의 본국으로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쉽고 재미있는
어른이들의 성경이야기
순삭성경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좋은책 읽어주는
그레이스타임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스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